



6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민승규 동문
벤처 농업을 주창하며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민승규 차관을
만나 그의 삶과 일에 대해 들어봤다.

동대신문

금주일언

남쳐 흐르는 액작의 물줄기를 남김 없이 말려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숫다나파타 제장 사품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4호 2010년 (불기 2554년) 5월 31일 월요일

Cover Story 영어강의의 문제 개선위한 조벽 석좌교수의 조언

“영어강의, 도입목표 분명해야 한다”

학문의 특성 반영과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도 중요 요소

“영어실력의 향상을 위해 전공 지식의 희생에 합의하느냐? 영어의 이해도가 우선인지 수업의 이해도가 우선인지 앞뒤가 바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학가에는 ‘영어강의’를 둘러싼 불평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명목하에 국내 대학들은 영어강의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가령 KAIST의 경우,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 한국문학, 한국어, 동양사 등의 수업을 포함해 모든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은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영어강의를 확대하는 추세(趨勢)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만이 팽배한 분위기다. 효율적인 영어강의의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동대신문은 세계의 명강의 5인에 꼽혔으며, 최근 영어강의의 노하우에 대한 교수법을 연구하고 있는 조벽 석좌교수를 만나 그의 조언을 들어봤다.

영어강의, 목표가 분명해야

조벽 교수는 “영어강의와 관련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목표 설정”이라며 “영어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서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의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어강의와 국내의 학생들을 글로벌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영어강의의 사이에서 노선(路線)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영어강의의 목표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해당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대학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 4명 중 3명(74%) 꼴로 영어강의를 1개 이상 듣고 있지만, 영어강의 수강 이유는 응답자 중 47%가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영어실력의 향상을 위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9%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 중 50.3%가 강의 수강 후 영어실력이 거의 향상되지 않거나 전혀 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영어강의의 성공 여부는 영어에 대한 불편함을 감당해내야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동의에 달려있다.

학문 특성 고려한 도입 필요

영어강의의 도입 및 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영어강의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단과대, 학과 내에서도 과목별로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경영대와 공대의 경우 강의 내용의 대부분이 영미권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보다 오히려 영어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 그는 “동일한 학과라 할지라도 서양사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가령 고대 한국사와 같은 강의는 불가능하다”며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영어강의가 아닌 각 학문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영어강의 준



▲조벽 교수는 영어강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공감대 형성을 주장했다.

비가 전혀 안 된 학과이거나 굳이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강의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준에 맞춰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단계별 수업을 진행하되, 가장 중요한 점은 수업 전 반드시 규칙을 세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없이 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어강의와 영어강의의 차별성이 사라지며, 구성원들에게 불만을 떠안기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영어강의, 공감대 형성 필요

영어강의의 목표와 시행 세칙을 정한 이후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벽 교수는 “교수와 학생 모두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보다 분명 강의의 질은 낮아진다”며 “강의의 질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수업 준비에 투자

하는 시간을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어로 강의하는 편리함까지 누릴 수는 없다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영어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강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설정과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난 학기 동대신문이 기획한 해외대학 벤치마킹리포트에서 보도했던 아시아 일류대학 흥국대학교가 바로 그 예다.

효율적인 영어강의의 정착을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 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연 우리대학이 영어강의의 확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보리수

명품인생

“너의 과거가 궁금하거든 오늘 내게 닥쳐 오는 일들을 보면 되고 너의 미래가 궁금하거든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인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왜 동국대에서 만나 같이 공부하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러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참 많을 줄 안다. 또 자신의 앞날이 어찌 펼쳐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가 궁금하다. 곰곰이 사유해보면 맞는 말이다. 우리는 과거를 모른다. 하나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일은 1초도 쉬지 않고 다가온다. 인연법(因緣法)이란 간단한 것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지극히 단순한 자연의 원리다. 경험되는 모든 일은 내가 알든 모르든 과거에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결과는 바꿀 수 없다. 이미 왔기 때문이다.



마가스님
천안 만일사 주지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하는 것 뿐이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꿈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실패하는 대부분은 결과만 바꿀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데 원인을 바꾸질 않고 결과만을 바꿀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이 바뀌질 않는다. 지금 현재의 ‘나’는 오 늘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다.

잘 살펴보자. 지금하고 있는 행동(身), 말(口), 생각(意)은 오늘의 결과를 만든다. 미래엔 오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으면서 어제와 똑같은 행동, 말,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결과를 변하게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말, 생각을 바꿔야 가능하다. 새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많은 학생들이 꿈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어제와 똑같이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변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일이면 늦는다. 지금 바로 행하라.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여러분의 꿈에 걸맞은 행동, 말, 생각을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하려고 해도 잘 안될 때 정각원에 와서 무조건 108배를 해 보라. 그래도 어려우면 학생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기 바란다. 여러분 주위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자작자수(自作自受),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거둔다고 했다.

당신은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귀한 사람이다. 가장 귀한 행동, 말, 생각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된다. 우리 모두 귀한 명품인생을 살자.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란다.

금주의 동대신문

2 김성민 교수 130억 과제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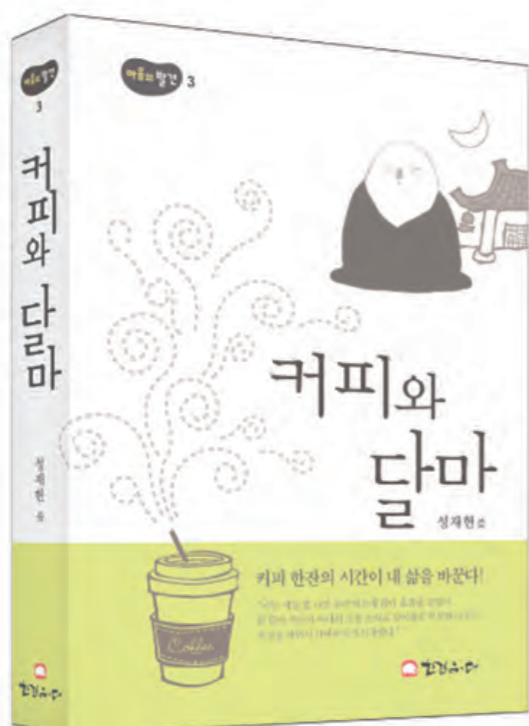
5 “대학언론 죽어야 산다”

12 [화보] 2010 동국 대동제

이번 호는 2010학년도 1학기 종강호입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커피 한잔의 시간이 내 삶을 바꾼다!

올여름, 좌선 열풍을 몰고 올 한 권의 책



커피와 달마

소설로 만나는 좌선의 세계

“나는 매일 밤 15분 동안 바르게 앉아 호흡을 골랐다. 한 달쯤 지나자 아내의 고함 소리로 맞이하던 부산한 아침이 좌선을 하면서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 본문 중에서

폭 빠져들어 읽는 동안 어느새 좌선이 내 안에 들어온다.



마음의 방앗간 3

이 시리즈는 현대인의 마음에 동물이 될 미래 콘텐트입니다.

성재현 | 값 12,000원

02)2260-3483, 2264-4705

회전문대

윤리적 주점

○... 그 학과에 그 주점이다? 무슨 말이고 하니, 바로 윤리문화학과 윤리적인 주점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안주 값으로 현금 대신 현혈증을 받은 윤리문화학과 주점 덕분에 학내에 술기운보다 뜨거운 훈훈함이 퍼졌다고 하는데.

주점에서 모인 현혈증서는 백혈병과 투병중인 환우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이보다 더 뜻 깊은 축제는 없는 것 같구나.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피는 술보다 진하다!”

자장가

○... 바이오시스템대학이 우리대학 설립 이념인 자비를 몽골에 널리 전파시켜 화제라는데. 이야기인 즉, 2008년 몽골 국립대와 MOU를 체결했던 우리대학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자비의 숲’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것.

천 그루의 나무 덕택에 사막화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자비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황사가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교수직 경매!

○... 서글픈 사건 하나가 대학가를 뒤흔들고 있는데 무슨 일이고 하니, 최근 한 사립대 시간강사가 교수임용에 탈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의 유서엔 대학 측이 교수 임용의 댓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적혀있었으니, 씁쓸함을 넘어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중평(衆評). 과거의 악습인 매관매직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교수직 절찬 판매 중! 최저가는 1억 5천만원!”

김성민 교수 외부 수주 130억

서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제치고 이뤄낸 쾌거

바이오시스템대학 김성민 교수(의생명공학)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한 ‘의료기기 개발 촉진센터’ 사업에 선정돼 2014년까지 총 5년간 130억을 지원(支援)받는다.

의료기기 개발 촉진센터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도약과 국가 R&D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원천 기술을 발굴(發掘)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김성민 교수는 ‘성장형 가치 창출 의료기기 개발 촉진 센터’라는 과제로 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연간 20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또 김성민 교수는 100억 원의 정부지원금 외에도 경기도와 고양시로부터 각각 연간 3억 원씩 5년간 모두 30억 원을 지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김성민 교수의 연구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해 대학본부 차원에서 추가로 연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성민 교수가 지원 받는 외부 수주 금액과 학내 지원금을 포함하면 총 140억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우리대학 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하대가 1차 선정됐었으며, 5개 대학 중

연세대와 우리대학이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김성민 교수는 “외부의 지원이 일체 없는 상황에서, 6개월 간 모든 연구진들이 매달려 얻어낸 성과”라며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민 교수의 사업 선정은 외부 수주금액이 총 130억 원으로 지원금액이 많기도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이 참가한 본 과제에서 우리대학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김철환 기자 lan@dongguk.edu



내가 만든 학식 메뉴 생활협동조합 주관 요리경연대회가 지난 26일 상록원에서 열렸다. high high팀이 치킨마요덮밥으로 수상했다. 견황 수습기자 kyun@dgu.edu

우리대학, 경기대 인수 추진

총 3곳 참여의사 밝혀... 이번 주 내 결과

우리대학이 경기대 측에 경기대 인수 의사를 밝히는 경영참여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歸趨)가 주목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경기대 측의 인수 의향 제의에 지난 5월 14일 경영참여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리대학 외에 경영참여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CU그룹, 김모 씨와 6명 등 총 3곳이다. 만약 우리대학이 경기대를 인수하게 되면, 서울 중구 필동과 경주, 일산, 미국 LA에 이어 서울 서대문구와 수원 영통구까지 캠퍼스를 보유하게 된다.

대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대 인수건과 관련된 우선 협상 대상자의 결과는 이르면 6월 첫째 주쯤 발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와 관련해 경기대 관계자는 “현 임시이사회가 7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만큼 그전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대는 2004년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재단 임원에 대한 교육부 승인이 취소돼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2008년 을지재단·인제학원 등이 경기대 인수를 추진하다 결렬(決裂)된 바 있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gu.edu

신입생 대상 전공 소개

대학전공기초 과목 인기

교양교육원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전공기초 과목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학전공기초 과목은 전공에 관한 기초 지식을 소개해주는 과목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다. 이번 1학기에는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Introduction to Humanities,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Introduction to Engineering의 과목이 개설됐다.

교양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신입생들이 전공과 영어강의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며 “본 강의의 수강을 통해 전공과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고, 영어강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간부 후보생 10명 합격

1회 해양간부후보생 1명도

올해 제 59기 경찰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발표 결과 우리대학 출신 10명이 합격했다. 경찰교육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대학 학경찰행정학과 김승범 군 등 10명이 합격했다. 또 제1회 해양간부후보생 시험에도 경찰행정학과 지태욱 양이 최종 합격했다.

유계영·이지영 현대문학 신인추천작

각각 시, 중·단편 부문에서 나란히 등단



▲유계영



▲이지영

시로 시 부문에, 이지영 양은 소설 ‘어가를 기르는 법’으로 중·단편 부문에서 신인추천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신인추천작은 ‘현대문학’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발표됐으며, 당선작, 심사평 등 자세한 사항은 ‘현대문학’ 6월 호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월간 ‘현대문학’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순수 문예지로 박경리, 최인호, 조정래 등 수많은 유명 문인들을 배출한 바 있다.

강기모 수습기자 km1004@dgu.edu

김희옥 헌법재판관 오는 4일 초청특강

‘준비하는 젊음과 꿈의 성취’ 주제로 문화관서 개최

헌법재판관 김희옥 동문(법72졸)이 오는 4일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비하는 젊음과 꿈의 성취’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사회과학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석 가능하다.

김희옥 헌법재판관은 76년 검사로 부임해 법무부 차관을 거쳐 헌법재판관까지 30여 년간 법조인으로 생활했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2010년 5월 3일 ~ 2010년 5월 16일

단위기금

경상북도체육회(기업/재단, 2478만2천원) 김중성(기업/재단, 10만원) 김국진(기업/재단, 500만원) 김봉이(학부생, 100만원) 김영미(불교/신도, 1만원) 김영제(일반/기타, 2만원) 김정연(기업/재단, 10만원) 김진구(기업/재단, 5만원) 도연연(일반/기타, 5만원) 방영오(불교/신도, 1만원) 백광득(동문, 1만원) 손봉호(동문, 2만원) 송문식(동문, 2만원) 신성철(동문, 1만원) 안명수(학부생, 2만원) 안영숙(기업/재단, 5만원) 양경승(기업/재단, 10만원) 윤주호(대학원(사회과학), 2만원) 이상록(동문, 3만원) 이재근(불교/신도, 1만원) 이재학(동문, 1만원) 이종연(동문, 2만원) 정부자(동문, 2000만원) 정재훈(동문, 3만원) 정철(동문, 1만원) 정학수(동문, 2만원) 조용석(동문, 1만원) 조장성(동문, 1만원) 최덕규(동문, 3만원) 최정태(동문, 1만원) 추교훈(기업/재단, 5만원) 하해웅(학부생, 1만원) 한민환(학부생, 1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1500만원) 황성수(동문, 1만원) 최정태(동문, 1만원) 추교훈(기업/재단, 5만원) 하해웅(학부생, 1만원) 한민환(학부생, 1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1500만원) 황성수(동문, 1만원)

병원발전기금

김위동(불교/신도, 3만원) 김형준(동문, 1만원) 온상오(동문, 2만원) 이순욱(일반/기타, 10만원) 차종훈(일반/기타, 50만원) 최홍배(일반/기타, 10만원)

비지정발전기금

곽주영(서울/직원, 1만원) 김개영(동문, 1만원) 김민희(불교/신도, 1만원) 김봉근(동문, 2만원) 김영일(불교/신도, 4만원) 류종욱(서울/직원, 10만원) 송경호(불교/신도, 1만원) 송미경(불교/신도, 1만원) 송은경(일반/기타, 1만원) 송진원(불교/신도, 1만원) 양수희(동문, 1만원) 유장원(불교/신도, 1만원) 유승진(불교/신도, 1만원) 윤성필(동문, 2만원) 이근성(불교/신도, 5천원) 이재선(일반/기타, 1만원) 이호원(동문, 3만원) 조일제(동문, 1만원) 해관스님(스님, 5만원)

장학기금

(제)청곡문화장학재단(기업/재단, 150만원) (주)대성강업(기업/재단, 100만원) (주)하이파킹(기업/재단, 800만원) 강영진(동문, 2만

원) 강지연(일반/기타, 2만원) 고철환(대학원/기타, 2만원) 곡진정(일반/기타, 1만원) 광동영(동문, 4만원) 구의경(불교/기타, 1만원) 구한보(동문, 1만원) 권순민(불교/기타, 1만원) 권오용(불교/기타, 2만원) 권종자(불교/기타, 1만원) 김경영(동문, 1만원) 김계연(서울/교수, 5만원) 김규영(동문, 5만원) 김금용(동문, 2만원) 김난영(동문, 5만원) 김덕년(스님, 1만원) 김미숙(불교/기타, 1만원) 김보하(동문, 2만원) 김상태(동문, 3만원) 김선유(불교/기타, 1만원) 김성수(동문, 3만원) 김성준(일반/기타, 2만원) 김용래(동문, 2만원) 김용주(동문, 2만원) 김용호(동문, 5만원) 김용희(동문, 1만원) 김일태(동문, 3만원) 김우태(동문, 5만원) 김윤경(일반/기타, 3천원) 김윤태(일반/기타, 2만원) 김인경(동문, 300만원) 김재성(일반/기타, 1만원) 김재호(불교/기타, 1만원) 김경곤(동문, 3만원) 김정효(동문, 2만원) 김정은(동문, 2만원) 김정호(일반/기타, 1만원) 김주익(동문, 1만원) 김지태(불교/기타, 1만원) 김진용(일반/기타, 3천원) 김현선(동문, 1만원) 김호산(동문, 5만원) 김휘웅(일반/기타, 2천원) 남현석(동문, 3만원) 류경자(불교/기타, 1만원) 명선스님(스님, 300만원) 모종배(동문, 10만원) 박광호(동문, 20만원) 박동채(일반/기타, 1만원) 박보경(불교/기타,

2만원) 박성훈(불교/기타, 1만원) 박수호(동문, 100만원) 박순자(불교/기타, 1만원) 박연이(불교/기타, 5만원) 박종훈(불교/기타, 1만원) 박종훈(일반/기타, 1만원) 박장근(일반/기타, 3만원) 박태환(동문, 1만원) 박혜경(동문, 2만원) 배나영(동문, 10만원) 백인국(불교/기타, 1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150만원) 서동일(동문, 1만원) 서광기(기업/재단, 7만원) 서찬영(동문, 1만원) 석정미재단(기업/재단, 150만원) 설재웅(동문, 300만원) 손경자(일반/기타, 1만원) 손상국(불교/기타, 1만원) 손승열(동문, 10만원) 손영수(일반/기타, 5천원) 송문영(동문, 10만원) 송유준(일반/기타, 2만원) 송우호(동문, 5만원) 신준주(불교/기타, 2만원) 신유정(불교/기타, 1만원) 신은희(동문, 2만원) 신정자(일반/기타, 1만원) 심경용(동문, 5만원) 심규홍(일반/기타, 1만원) 안정용(일반/기타, 1만원) 양종호(동문, 3만원) 여익구(동문, 20만원) 유학스님(스님, 50만원) 원현주(불교/신도, 2만원) 유상록(동문, 4만원) 윤주호(대학원(사회과학), 5만원) 윤준호(동문, 2만원) 이정성(불교/기타, 2만원) 이광우(동문, 2만원) 이부순(일반/기타, 2만원) 이두이(불교/기타, 5만원) 이라우(동문, 1만원) 이상민(동문, 4만원) 이상진(동문, 1만원) 이상익(일반/기타, 3만원) 이선경(일반/기타, 2만원) 이원규(동문, 2만원) 이정덕(동문, 1만원) 이종찬(일반/기타, 1만원) 이지희(동문, 3만원) 이혁(불교/기타, 2만원) 이혜선(동문, 2만원) 이혜주(일반/기타, 1만원) 임금옥(불교/기타, 5만원) 임영애(불교/기타, 2만원) 장민영(동문, 2만원) 장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전영일(서울/교수, 50만원) 전용택(일반/기타, 1만원) 전포성(일반/기타, 2만원) 전영준(동문, 3만원) 정성용(동문, 3만

원) 정영상(일반/기타, 3만원) 정유경(동문, 1만원) 정진도(동문, 1만원) 정진도(동문, 2만원) 정창수(불교/기타, 1만원) 정환섭(동문, 2만원) 조당호(동문, 3만원) 조명래(불교/기타, 2만원) 조아라(일반/기타, 5천원) 조진권(동문, 1만원) 조태수(동문, 1만원) 조희준(일반/기타, 3천원) 지승림(불교/기타, 2만원) 체윤미(일반/기타, 1만원) 최문정(일반/기타, 1만원) 최보영(동문, 1만원) 최성윤(동문, 10만원) 최이영(동문, 1만원) 최우혁(일반/기타, 1만원) 최준성(동문, 50만원) 최창영(동문, 3만원) 탄성스님(스님, 1만원) 하경천(일반/기타, 2만원) 허민진(불교/기타, 1만원) 허진석(동문, 5만원) 황상복(일반/기타, 2만원)

특정목적기금

강윤성(불교/신도, 3천원) 강정실(동문, 1만원) 강태훈(불교/신도, 3천원) 강희원(불교/신도, 3천원) 경북북부협회(기업/재단, 1100만원) 경주정가원(사찰, 45만1천원) 교복우(동문, 1만원) 공석돈(동문, 10만원) 권동호(동문, 1만원) 권부성(일반/기타, 3천원) 권초록(일반/기타, 3천원) 김경(일반/기타, 1만원) 김남원(불교/신도, 5천원) 김덕표(동문, 1만원) 김동석(학부생, 1만원) 김동영(일반/기타, 3천원) 김병희(동문, 1만원) 김병균(일반/기타, 2만원) 김명수(동문, 3만원) 김성원(동문, 5천원) 김순례(불교/신도, 3천원) 김예린(불교/신도, 5천원) 김양순(불교/신도, 3천원) 김의경(불교/신도, 1만원) 김준형(불교/신도, 3천원) 김태린(일반/기타, 5천원) 김향자(일반/기타, 1만원) 김현경(일반/기타, 3만원) 김현진(동문, 4만원) 대연스님(스님, 1만원) 도운스님(스님, 5천원) 도운스님(스님, 1만원) 류

창원(동문, 1만원) 무구스님(스님, 5만원) 박계훈(학부생, 1만원) 박광영(동문, 1만원) 박기정(동문, 20만원) 박문고(동문, 3만원) 박문한(동문, 1만원) 박상달(동문, 1만원) 박수연(불교/신도, 3천원) 박주영(불교/신도, 3천원) 박철수(동문, 1만원) 배은석(기업/재단, 5만원) 변지훈(불교/신도, 5천원) 변지희(불교/신도, 5천원) 보문스님(스님, 3천원) 서경진(경주병원/교수, 1만원) 서미희(경주병원/직원, 1만원) 선공스님(스님, 1만원) 손동익(일반/기타, 10만원) 손민준(일반/기타, 5천원) 송석환(불교/신도, 12만5천원) 신태숙(불교/신도, 5천원) 심정원(불교/신도, 3천원) 안근선(동문, 2만원) 양기중(불교/신도, 3천원) 오기운(불교/신도, 3천원) 오영(일반/기타, 3천원) 원영주(불교/기타, 10만원) 윤경식(일반/기타, 1만원) 윤명순(불교/신도, 3천원) 윤정원(동문, 3만원) 이경희(불교/신도, 3천원) 이수야(일반/기타, 1만원) 이승민(일반/기타, 3천원) 이시형(학부생, 2만원) 이재자(불교/신도, 1만원) 이상승(일반/기타, 3천원) 이상희(경주병원/직원, 5천원) 이윤진(불교/신도, 3천원) 이종원(불교/신도, 1만원) 이철희(기업/재단, 1만원) 이태제(동문, 2만원) 임성진(경주병원/직원, 5천원) 임준(불교/신도, 2만원) 정환국(서울/교수, 10만원) 정위자(불교/신도, 5천원) 조순식(서울/직원, 20만원) 조현정(일반/기타, 3천원) 좌성용(불교/신도, 1만원) 지용규(일반/기타, 10만원) 최제진(동문, 10만원) 최정연(불교/신도, 3천원) 탁상민(서울/직원, 6만원) 하윤실(동문, 1만원) 함민희(불교/신도, 1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578만3793원)

바이오대 이전 둘러싸고 본부·학과구성원 ‘갈등’

대학본부 지난 25일 설명회... 학생·동문 “사전협의 없었다” 반발

바이오시스템대학(이하 바이오대)의 일산캠퍼스 이전(移轉) 문제와 관련한 설명회가 지난 25일 해화관 204호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한진수 경영부총장, 최순열 학사부총장, 이영면 전략기획본부장, 바이오대 학생, 교수, 동문(同門)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현재 바이오대의 실현실, 실습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사실 90년대 중반에 이공계 대학의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97년 IMF를 맞으며 계획이 중단됐었다”며

설명회의 배경을 밝혔다.

설명회는 바이오대 이전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BT특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일산 캠퍼스 조성 계획 등의 순서로 이뤄진 PPT 발표로 시작했다.

이영면 전략기획본부장은 “신규 초빙된 교원과 일부 연구실부터 우선적으로 이동(移動)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교양과목의 경우 온라인 및 원격(遠隔) 강의를 개설하겠다”며 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영면 본부장은 “일산캠퍼스의 바이오대학관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약

4,300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며 “총 7,800평 정도로 지어지는 기숙사는 약 7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受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의 설명이 끝난 후 가진 질의응답시간에서 고광률(농학66졸) 동문은 “바이오대 구성원들 모두가 관심이 많은 이 사안을 최소한 동문회장, 임원들에게라도 미리 설명을 해 의견 교환(交換)을 했어야 했다”며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추고 자리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공학과와 정진석 학생회장도 “설명회를 왜 이례하 하는지 모르겠

다”며 “바이오대가 약대를 위해 희생 양이 되어서 안된다. 왜 사전에 바이오대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순열 학사부총장은 “절차적 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학 운영을 하는데 있어 일일이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며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뜻을 반영하고 소상한 학교 측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계속되는 실패에도 끝없이 도전”

광고 공모전 금상 수상한 김중현·김혜란 팀

김중현 학생(광고홍보05)과 김혜란 학생(광고홍보07)이 ‘썸’이라는 팀으로 서울우유 두잇 광고 공모전에 참가해 TVC와 인쇄광고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김중현·김혜란 팀이 참가한 공모전은 1500:1의 경쟁률이 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김중현 학생은 자신에게는 길거리 자체가 놀이터라고 말한다. 평범한 신호등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호등이 왜 그 위치에 있는지 두 번, 세 번 생각한다. 또 언제 어디서 기발한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닌다는 김중현 학생의 노트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로 도배돼 있었다.

혹시 기억에 남는 공모전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참가했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1학년 때부터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계속되는 탈락에 좌절도 많이 했다는 김중현 학생. 공모전에 떨어질 때 마다 의욕도 같이 떨어졌지만 노후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상투적인 말 같아도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덧붙였다. 김혜란 학생은 이번 공모전의 수상을 계기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보고 싶어졌다며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김혜란 학생은 “특별히 롤 모델로 생각하는 광고제작자는 없지만, 노력하는 스스로를 믿는다”라며 당차게 말했다.

졸업 후의 진로 준비에 대해서도 그녀는 알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김혜란 학생은 다음 달 우리대학에서 주최하는 광고 공모전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꿈은 졸업 후 외국에 나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다양한 광고를 접해 보는 것이다. 수상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다음 공모전을 준비 중이라는 김중현·김혜란 팀. 이들이 제작한 기발한 광고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김보혜 수습기자 boo@dongguk.edu

학생 편의 고려한 모바일 학생증 2학기 도입

기존 서비스 외에 도서관 자료검색, 성적조회 등 부가서비스도 이용 가능

우리대학이 학생들의 편리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2학기부터 모바일 학생증을 도입(導入)한다.

모바일 학생증은 기존의 카드형 학생증 기능이 휴대전화 속에 저장(貯藏)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 기존 카드형 학생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대출·예약 정보, 성적조회, 수강 신청 및 조회와 같은 학사행정 업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학생증을 이용하기 위해서

는 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USIM 칩이 내장(內藏)되어 있는 휴대전화여야 한다.

모바일 학생증이 도입될 경우, 각종 학사일정 및 교내 행사, 휴강 및 강의실 변경 공지 등을 모바일로 안내해 정보 이용 접근성의 제고(提高)는 물론, 기존의 카드형 학생증 재발급 및 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관련 인력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CS 경영팀 박서진 팀장은 “현재 모바일 학생증 도입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3사와 논의 중에 있다”며 “모바일

학생증이 도입되면, 학생들이 훨씬 더 편리한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재학생 91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학생증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모바일 학생증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55.1%가 모바일 학생증 다운로드 시 이용료가 부과(賦課)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원 수습기자
sang1@dongguk.edu



총장과의 데이트 총장과의 데이트가 지난 26일 원흥관 옥상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54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오영교 총장과 학생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원 수습기자 sang1@dongguk.edu

바이오대 ‘자비의 숲’ 조성 및 비타민나무 조림

이전 설명회 지난 25일... 이전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가져



지난 13일, 바이오시스템대학(이하 바이오대)학장을 비롯해 생명과학연구원, 바이오시스템대학 연구원, 교수 등을 포함한 총 11명이 ‘자비의 숲’ 조성 및 비타민나무 조림(造林)에 참가했다. 2008년 우리대학과 MOU(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국립대학에서 동국·몽골대 ‘자비의 숲’ 조성 기념식 개최 및 비타민나무 1천여 그루를 식재(植栽)했다. ‘자비

의 숲’은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85km 떨어진 바춤버에 위치한 사막화 방지 전진지이다. 바이오대는 총 10ha(99,000m²)를 목표로 매년 2ha씩 개간(開墾)하여 2015년까지 모두 1만 여 그루의 비타민 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기념식과 비타민나무 조림 행사에는 박정국 학장을 포함한 바이오대 관계자 11명, 몽골국립대학 조그바드락(Tsogbadrakh)대학원장, 바쿠(BAtkhuu) 생명과학대 학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편 바이오대는 ‘자비의 숲’ 조성을 계기로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

회 발전 지원 계획’에 따라 몽골 현지에 비타민나무 가공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비타민나무를 활용한 화장품 등과 천연 음식료품을 생산하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대 대표단은 방문기간 중 몽골공화국대사관과 KOICA 몽골사무소를 방문하여 ‘자비의 숲’ 조성과 연계한 비타민나무 가공 공장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協助)를 요청했다. 바이오대 관계자는 “현재 몽골 GDP의 21.7%(2003년 기준)는 농업(목축업)을 기반으로 한다”며 “비타민 나무를 통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임정민 수습기자 ljm428@dgu.edu

제253회 재단이사회

교원인사 등 7개 안건처리

제 253회 이사회가 지난 27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개최(開會)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承認)된 사항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안건이다. 이번 이사회는 정련스님, 성관스님, 영답스님, 수인스님, 오영교 총장 등 9명의 이사와 감사가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論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일산 불교병원 기체 승인에 관한 사항 △서울캠퍼스 기체 승인에 관한 사항 △불용자산 폐기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미수금 대손상각 승인에 관한 사항 △부속병원 임상교원 인건비 채무면제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각급기관 2009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2학기부터 시범운영

우리대학이 다음 학기부터 출석호명으로 인한 수업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출결시스템은 강의실 입구에 설치되는 전자출결기에 학생증, 학번과 비밀번호, 모바일 학생증, 지문인식 등의 방법 중 택일해 출석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전자출결시스템 기기는 이르면 다음 학기 둘째 주부터 경영관, 문화관 등 대규모 강의실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컴퓨터로 전산화된 출결 정보는 담당 교수와 해당 강의의 수강하는 학생이 u-dri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보관리실 문상국 팀장은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해 출석호명으로 낭비되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o Dream 전형 신설

전공특성 살려 평가

우리대학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자기추천전형에 대신해 새로운 입학사정관 전형인 ‘Do Dream 특성화 전형’을 도입(導入)한다.

Do Dream 특성화 전형은 서류평가, 면접 위주의 기존 선발방식에서 변경(變更)된 것으로, 단과대별 지원 전공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選拔)하는 방식이다.

입학사정관실의 김홍희 입학사정관은 “기존의 자기추천전형보다 좀 더 개선된 Do Dream 특성화 전형을 통해 유능한 인재(人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악로에서

이지연 기자
lly88918@dggu.edu



용두사미

“바이오대 이전 문제나 학과 소속 변경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이 학교 현안(懸案)과 동떨어진 것 같았다”

‘총장과의 데이트’에 참여했던 사과대 A군의 말이다. 지난 26일 원흥관 옥상정원에서는 ‘총장과의 데이트’가 진행됐다. 오영교 총장은 사전에 신청 받은 50여명의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총장과의 데이트’의 전신은 ‘총장과의 대화’였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총장과의 대화’는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전반적인 학내 현안에 대해 60여 개 이상의 질의로 이뤄졌다.

당시 오 총장 부임이후 시행됐던 각종 정책들로 인해 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때문에 ‘총장과의 대화’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많았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총장과의 대화’는 그 규모가 줄고 발언할 참석자를 사전에 신청 받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결국 작년부터는 ‘총장과의 데이트’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총장과의 대화’가 점차 변한 이유에 대해 주관 부서인 CS 경영팀 박서진 팀장은 “참여 학생의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학생과의 스킨십을 늘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실(內實)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형식에서 ‘데이트’의 형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의 ‘총장과의 대화’와 비교해보면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실제로 이날 ‘총장과의 데이트’에 참여한 바이오대 B양은 “우리 과가 일산 캠퍼스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참여했다”며 “하지만 너무 가벼운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중한 이야기하기가 망설여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용두사미란 용머리에 뱀의 꼬리란 말로 시작은 그럴 듯하나 끝이 흐지부지함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의 ‘총장과의 데이트’가 학생회가 아닌 일반 학생이 총장과 직접 만나 소통(疏通)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과 직접 학교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충실(充實)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초기 ‘총장과의 대화’를 기획했던 취지(趣旨)가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교수는 '난감' 학생은 '가웃' 소통은 어디에?

학교측 '교수 학습법 재교육' 등 대안 마련 부심 ...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영어강의 임하는 자세 필요

도입 2년 맞은 영어강의의 빛과 그늘

대학가에 불어온 '국제화 열풍(熱風)'이 아직도 뜨겁다. 우리대학 역시 국제화 열풍에 발맞춰 영어강의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그 결과, 전체 강의에서 영어강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필수적으로 영어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어강의의 확대에 대해 의문, 혹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영어강의가 도입된 지 약 2년이 흐른 지금, 현재 우리대학의 영어강의의 현황을 알아보고,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할지 취재했다.

영어강의 비율의 지속적 증가

교무팀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전공 영어강의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8학년도 1학기에는 10%였던 전공 영어강의의 비율이 2009학년도 2학기에는 19%까지 증가했다. 현재 2010학년도 1학기 전공 강의에서 영어강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27%에 달한다. 영어로 진행되는 교양과목 역시 증가하는 추세(趨勢)다. 2008년에 개설된 1,686개의 교양과목 중 영어로 진행되는 교양과목이 299개로, 약 17%의 비율을 차지했다. 2009년에는 총 1,769개의 교양강좌가 개설됐고, 그 중 21%에 해당하는 382개의 강

의가 영어로 진행됐다. 영어강의의 비율이 17%였던 2008년에 비해 83개의 강의를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영어강의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경영대의 경우, 현재 121개의 강좌 중 약 60%에 해당하는 71개의 강좌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대학은 국제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영어강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양동훈 경영대 학장은 "올해 영어강의를 6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를 달성했고, 내년에는 7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영어강의

영어강의가 확대되고 동시에 학생들 역시 영어강의는 피할 수 없는 필수코스가 돼 버렸다. 졸업 요건에 영어강의 최저이수기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8과목 이상의 영어강의를 들어야하고, 광고홍보학과와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11과목 이상의 영어강의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본인의 희망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어강의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대학은 교양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신입생 영어레벨테스트(U-TEPS)를 통해 신입생의 영어실력을 수준별로 A, B, C로 나눠 A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트랙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트랙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불교와 인간' 강좌를 영어로 듣는 등 여러 영어강의를 이수하게 된다. 또 우리대학은 교수들에게 영어강의의 진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에게는 어문계열의 강의는 시간당 2만원, 그 외에는 시간당 3만원의 영어강의 수당이 지급(支給)된다. 또한 2007년 이후에 신규 임용된 교수부터는 영어강의가 신설될 때 1회에 한해서 200만원의 교재 개발비를 받는다. 하지만 인센티브와 별개로, 교수에게도 영어강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2007년 3월 이후에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매학기 1과목 이상의 영어강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지급된 200만원의 교재 개발비를 환수(還收)당하고, 교육업적평가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까지 영어강의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영어강의의 효용성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는 영어강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무팀 김영훈 팀장은 "요즘 학문자체가 영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재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인 만큼 영어강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측은 전공이 아닌 교양 과목의 영어강의도 효용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우리대학은 2009년 신입생 영어레벨테스트 결과 A등급을 받은 1,000명을 대상으로 영어트랙을 운영해왔다. 교양교육원에 따르면 영어트랙 수강생을 대상으로 4번의 모의토의회를 통해 영어능력을 테스트해본 결과, 1차 시험 대비 평균성적이 118.9점이 향상(向上)됐다. 교양교육원 박세훈 학사운영실장은 "영어트랙 수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라며 "분석결과를 보면 영어트랙이나 영어강의가 학생의 영어 능력 향상에 일정 수준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

점차 영어강의의 비율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영어강



의를 진행하는 교수와 영어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학교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영어강의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얘기가 있어 영어강의를 진행한 경험이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영어강의가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공대 과목은 한국어로 진행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영어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면 단순한 지식전달 수준의 강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바이오시스템대학의 한 교수도 "영어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이해하지 못해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학생과 교수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너무 심해 영어강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잘하는 학생은 이해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라며 "학생들의 편차(偏差)가 너무 심해서 강의의 난이도와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라고 불편함을 토로(吐露)했다.

학생들 역시 영어강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임창훈 군(국문09)은 "학생들에게 영어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력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영어강의를 듣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승우 군(경제07)도 "필요성에는 공감하

지만 학생들이 편법으로 한국어 교재를 이용하거나 교수님 역시 답답한 나머지 강의 도중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영어강의는 개선(改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구성원 모두 개선노력 동참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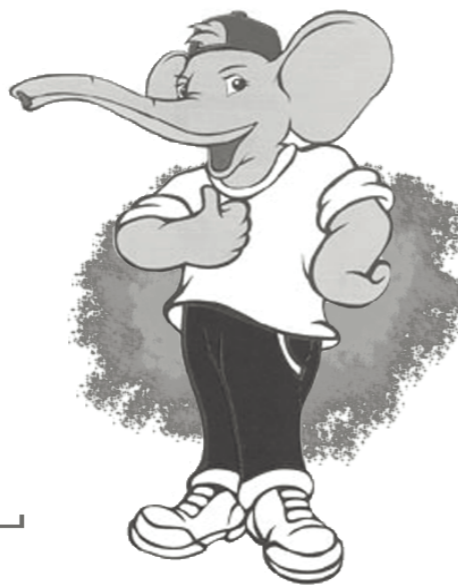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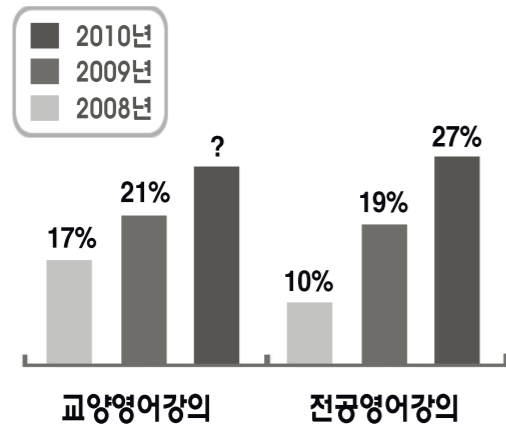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학생과 교수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圓滑)하지 못한 점이나, 학문의 차별성을 존중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영어강의를 늘려가는 등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무팀 김영훈 팀장은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진행을 위해 교수 학습법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또 교양교육원 박세훈 실장은 "영어강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지 이제 2년 차인 만큼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것"이라며 "교수와 학생 모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제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영어강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영어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강의에 참여하는 학습태도의 변화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영어강의 증가추세

단위: 전체강의 중 영어강의 비중 %
출처: 교무팀, 교양교육원



**<태왕사신기>
SBS 서득원 촬영감독 특강!**

금일(31일) 오후6시~8시
문화관 제3세미나실!
문의 : 2260-8754

영 화 과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초청 특강]

자본시장의 미래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최현만 부회장
6월 1일(화) 오후 2시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

14:00 인사말 : 서울경제신문 이종승 사장
환영사 : 동국대학교 오영교 총장
축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생태계 사무총장
특강자 소개 : SENTV 흥현중 해설위원

14:15 특강 및 질의응답

『철학·사상·문화』 제10호 논문 모집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는 2010년 7월 31일 발간되는 『철학·사상·문화』 제10호에 수록될 논문을 모집합니다. 『철학·사상·문화』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모집 대상 영역은 철학, 사상, 문화입니다.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고 제출 마감일 : 2010년 6월 15일(화)까지
- 2) 원고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ischoi@dongguk.edu 또는 bellkei@dongguk.edu)
- 3) 원고 영기사항 :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 4) 원고 제출 관련사항 :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 (<http://ins-ewt.dongguk.ed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10년 7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10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서사상연구소(교내 8838) 또는 연구소 조교 박영식(019-629-1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사상연구소

社會科學研究 제17권
제2호 원고모집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사회과학연구』(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분량 : A4 20-30매
기간 : 2010년 6월 25일까지
발간일 : 2010년 8월 25일
보내실 곳 : www.ris.dongguk.edu
원고양식 : 사회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riss.dongguk.ac.kr>)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재기획 - 편집권 침해 사례를 계기로 본 대학언론의 발전 방향

대학언론, “죽어야 산다”는 발상의 전환 필요

경영 마인드 · 재정 독립 시급, 주간(週刊)에서 일간(日刊)으로 전환 검토할 시점

연재기획 2회 ‘대학언론 위기 해결책은 없는가?’에서는 1회에 제기했던 대학언론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학 언론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성해 박사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연재 순서

1. 어려움에 처한 대학언론의 현주소
2. 대학언론 위기 해결책은 없는가?

대학신문은 계류(鷄肋)이다. 대학 당국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홍보매체에 돈을 쏟아 붓는 것에 불만이다. 이념의 선명성을 잃은 지 오래인 한물 간 매체에 대한 학생회의 눈길도 굵지 않다.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 기자들이 제공(提供)하는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도 박하다. 대학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는 물론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대학신문의 추락은 운명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없고 날마다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대학신문에 대한 후대점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대학 민주화(民主化)의 상징으로 사랑과 우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왔던 대학신문의 퇴장을 아쉬워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학신문이 오늘날 받고 있는 이러한 대접은 정당하지 않다. 제대로 한 번도 피어 보지 못한 ‘꽃’을 두고 쓸모없는 ‘풀’이라고 치부(齒簿)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학신문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대학신문의 존재 필요성

대학신문의 첫 번째 비전은 대학이라는 민주적 공동체의 ‘공론장’ 역할에 있다. 민주적 공동체로서 대학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이들은 공론장을 통해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論議)하고, 합의를 형성하고, 나아가 공동의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중재자(仲裁者)’가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대학 공동체에서 이 역할은 ‘집단적으로 작업하고, 높은 윤의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지식’을 갖춘 대학신문이 담당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학신문은 저널리즘과 광고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자산이 된다. 즉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축소된 공동체에서 기자로 일할 경우 기초적인 기사작성, 인터뷰 요령 및 명예훼손과 같은 언론 현장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대학신문의 광고가 지금과 달리 보다 활성화 될 경우 광고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광고를 수주(受注)하고, 디자인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강의 중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으로서의 대학신문

대학신문은 또 세 번째로, 경제적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대학신문은 재학생, 학교 관계자, 동문회 및 지역사회를 포함해 최소 3만 명 이상의 안정적인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소비자를 추구하는 광고주들에게 대학신문은 매력적인 매체이며,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가능하다.

끝으로, 대학신문을 온라인과 통합해 운용할 경우 공동체 문화의 발전과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문화적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대학신문을 플랫폼으로 해서 구축(構築)된 가상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과 행사를 이끌어 내거나 재학생, 동문회 및 지역사회 간 가교(架橋)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대학신문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미래전략을 취할 경우 이 비전을 현실로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미래전략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발상의 전환’에 있다. 한국 대학신문 관계자들은 아카데미즘을 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고를 수익원으로 하는 모델은 택할 수 없거나,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안정적인 재원이 조달되는 만큼 근본적 변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성언론과 달리 비영리법인인 대학신문에서 모든 수익은 언론사 내부 유보금이나 교육 및 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지출



된다. 대학신문이 상업주의의 병폐(病弊)로 타락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재정적 독립과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신문에는 경영의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적 독립과 경영 마인드 필요

신문 운영자금이 대부분 대학 측에서 나오며, 신문사는 주어진 금액을 효율적으로 쓰지만 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 대학신문이 재정적 독립을 추구했던 이유는 학교 당국은 물론 학생회로부터도 독립되고자 했기 때문이며, 전문경영인을 영입함으로써 성공적인 재정자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편집권 독립과 조직의 다양화-전문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가령,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통한 재정적 독립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고 한다면 차선으로 경영과 편집을 분리(分離)하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는 방안이 있다.

대학과 학생이 모두 대학신문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편집권 분쟁이

자른 국내 대학신문에서 이러한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학생 기자들에 대한 교육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많은 미국의 대학신문사나 방송국들은 신문기자나 방송인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전문학생들은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성 신문사나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흔하다. 물론 현재와 같은 국내 대학신문의 지면구성과 기사유형은 학과 과정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다라서 기성 언론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현장경험이 대학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언론사 채용에서도 이 경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발행 횟수의 증가 방향 모색해야

마지막으로, 공동체 모델에 맞도록 맞춤형의 다양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고, 매일 신문을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력도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공론장의 특성이 안정성과 지속성

에 있다고 할 경우 방학이라는 이유로 모든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기간 내에 매일 발간(發刊)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 2회 발행으로 시작해 주 5회 발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독립형 대학신문들도 오랜 세월이 걸쳐 발행 횟수와 지면을 늘렸고, 대학공동체의 핵심적인 매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대학신문의 위기는 단순히 많은 매체 중의 하나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위기를 뺄 수 없다고 할 경우 대학신문의 위기가 어떤 의미인가는 더욱 뚜렷해진다.

다라서 대학신문의 미래전략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길은 멀다.

그러나 대학신문에 대한 공청회(公聽會)나 토론회를 열고, 이를 통해 대학신문의 의미, 가치 및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등을 보다 다양하게 논의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김성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박물관 ‘이달의 문화재’ 전시

박물관에서는 2010년 연중 기획으로 ‘이달의 문화재’란 테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박물관 소장품 중 그동안 미공개된 작품과 그 달의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1층 상설전시실 내 ‘이달의 문화재’ 전시 코너에서 특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유물 관람의 폭을 넓히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6월에 ‘이달의 문화재’는 <희경루방회도(1567년)>와 <청동소종(13세기)> 두 작품을 전시 합니다.

<희경루방회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조선시대 양반관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으로 2009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특별전에 출품된 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청동소종>은 고려후기 범종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작품으로 2009년 일본 교토 오타니대학 특별전 출품 이후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해외에 출품되는 높은 수준의 박물관 소장품을 실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6월의 문화재 : 희경루방회도 喜慶樓榜會圖
| 98.5 × 76.8cm | 조선시대(156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267호)

청동소종 靑銅小鐘
| 높이 34.6cm | 고려시대(13세기)

◇ 전시기간 : 2010년 6월 1일(화)~6월 29일(화) 약 1달간
◇ 관람시간 : 월-금 (오전 10:00-오후 4:00)

*문의 전화 02-2260-3722/ 전송 02-2260-8783

박물관

생각의 가치를 알고 싶은 당신, 응모하라! 想象예찬 2010-1 동국 글쓰기 공모전

<제 6회 동국 우수보고서 공모>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대상 : 2009년 2학기 / 2010년 1학기 교양수업 보고서 감상문(독서, 영화비평, 기행문 등)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50만 원
우수상 3명 각 10만 원

[응모마감] 6월 4일 (금)
[응모방법]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결과발표] 2010년 6월 11일(금)
[문의]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TEL (02)2260-3380
[기타] 제출할 원고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보고서 공모의 경우 강좌명, 담당교수명 기입)

홈페이지 <http://writing.dongguk.edu>

글쓰기 센터 상담 프로그램

글쓰기는 독서와 배움의 성찰적 표현입니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모든 학문의 기초 소양입니다.

지금 글쓰기센터에서는 교양과목 보고서 및 일반보고서, 취업 자기소개서 등과 관련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쓰기센터 상담 연구원>

전임연구원	서희원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9년 문화일보, 세계일보 문학평론으로 등단
객원연구원	복도훈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6년 <문학동네> 문학평론으로 등단 2007년 제52회 현대문학상 평론부문 수상
객원연구원	조형래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년 경향신문 영화평론으로 등단
연구조교	김수진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연구조교	장동준	동국대 국어교육학 석사과정

취업글쓰기상담, 일반보고서상담, 보고서집중상담은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 혹은 udrims를 통해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농업도 벤처일 수 있다는 생각 심고 싶어”

현장감각과 아이디어를 함께 갖춘 농업 희망전도사 ... 주종환 교수와 인연 각별

자랑스런 동국인을 찾아 <6> 농식품부 제1차관 민승규 동문

공자(孔子)는 식(食), 병(兵), 신(信) 셋 중에서 군사(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이라고 하여 군사력보다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양식을 강조했다. 서구 기독교 교리에서 농민은 식량을 생산하는 근면한 사람들로서 '신의 선택을 받은 자'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농업(農業)은 국가를 불문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산업이지만, 오늘날 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은 먹는 것이 전부라는 개념을 타파하고, 농업에 엔터테인먼트, 예술을 접목(接木)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있는 농업혁신 전도사가 있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1차관으로서, 농식품부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승규(농업경제 88졸) 동문이다.



직접 발로 뛰는 농업전도사

민승규 동문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일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으로 발탁돼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해 1월 농식품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민 동문은 취임식에서부터 '꿈이 있는 농업이 돼야 한다. 농업이 변하려면 농식품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창조적 정책'과 '처절한 노력'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의지를 반증하듯, 민 동문은 주말마다 농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농민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反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농민들이 교육을 신청하면 '방방곡곡 농업스쿨'이란 이름으로 현장 특강을 개최한다"며 "직접 교육도 진행하며, 잠도 농가에서 같이 잔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이번 농식품부가 어느 때보다 현장(現場)을 강조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했다.

동국에서 배운 농촌의 생리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농민들이 왜 생활이 어려울까를 책상 앞에서 고민만 해서는 안된다. 직접 현장에 가서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關係)들을 봐야한다". 민승규 동문은 스승인 우리대학 주종



환 교수의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 가면 감이 떨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시간이 날 때마다 농촌 현장을 찾는 민 동문의 그 '감' 이야말로 그가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는 "농업 경제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자인 주종환 교수가 동국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형으로부터 듣고 동국대 입학 결심하게 됐다"며 "주종환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농업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매료(魅了)될 수 있었고, 농업경제학자로서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며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주종환 교수 찾아 입학 결심

민승규 동문은 "나는 모범생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농촌 곳곳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재학시절을 떠올렸다. 전공 공부를 제쳐놓고 2학년 때까지 친구들과 농촌을 여행하는데 몰두했던 그가 본격적으로 농업 경제학에 입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종환 교수님과 만남" 덕택이라고 밝혔다.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야 처음으로 전공 수업에 참석했다. 교수님께서 개강 첫 수업

부터 지각을 해 남아 있던 맨 앞자리로 걸어가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다"며 스승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그 때 대답이 명쾌했는지 그 이후 수업시간마다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기 위해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며 "질문 응답식의 강의를 통해 농업경제학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인연으로 학부 조교생으로 발탁된 그는 주종환 교수의 연구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농업경제학에 대해 많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교수님 말씀은 아직까지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농업에 상상력을 불어넣다

농촌에서 마시는 술로 인식되던 막걸리는 국내 식품시장을 주도(主導)하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끌어올렸다. 이를 반증하듯 막걸리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선정한 '2009년 10대 히트상품'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막걸리 흥행의 중심에는 민승규 동문이 있었다. 그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값싼 술로 인식되던 막걸리의 고급화를 위해 세계적인 와인 '보졸레 누보'와 같은 마케팅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비트박스, 비보잉, 아크로바틱 등을 동원해

비빔밥을 문화 예술 공연으로 승화시킨 비빔밥 퍼포먼스를 고안(考案)해낸 것도 그이다.

창조적 플레이어가 되라

전통 농업에 예술, 문화 등을 덧붙여 고부가가치화해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벤처 농업'을 토대로 농식품부의 혁신(革新)을 이끌고 있는 민승규 동문. 그는 후배들에게 "창조적인 플레이어가 되라"고 조언했다. 그가 말하는 창조적인 플레이어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발상을 내놓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는 "미래 사회는 가치의 원천이 '지식과 정보'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전환(轉換)된다"며 "빙산에 일각에 불과한, 자신의 밑에 깔려있는 상상력을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하라"고 조언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연(連), 열려있는 사고를 뜻하는 개(開), 작지만 강한 농업을 뜻하는 소(小), 이미지 쇄신을 뜻하는 문(紋)' 연개소문 전략을 표방한 민승규 동문. 그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색다른 농정 전략(戰略)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혀나갈 그의 모습이 기대된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프로필

△ 1961년 서울 출생 △ 1988년 동국대 농업경제학과 졸 △ 1994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 1995년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2000년 한국벤처농업대학 설립, 교수 △ 2005년 농림부 농업통상 정책협의회 위원 △ 2008년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농수산비서관 △ 2009년 1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동목고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 천연물 재료로 만든...

동목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목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자매품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머약자

자매품 초코동목고는, 동목고를 섭취하는 분들에게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목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목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목고"와 "초코동목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동악에 붙어닥친 1인 미디어의 바람, 블로그

영문과 몽고메리 교수·김경민·고유석 군 등 파워 블로거 3인 3색 이야기

“이제 1인 미디어 세대가 도래(到來) 한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普及)됨에 따라 1인 미디어라 불리는 블로그(Blog) 붐이 일고 있다.

블로그란 web+log의 줄임말로 웹 세대들에겐 이제 친숙할 따름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일기나 여행기를 인터넷 상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최근 블로거(Blogger)들의 활동공간인 블로그스피어(Blogosphere)가 늘어남에 따라 파워 블로거란 용어가 등장했다.

파워블로거란 블로그 세대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그들이 게시한 콘텐츠는 네티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대학 내에도 꾸준한 게시를 통해 영향력을 자랑하는 파워 블로거 3명이 있다.

블로그를 통해 자아를 찾아나가는 자신의 색깔과 개성이 담긴 3인 3색 동국대 파워블로그를 소개한다.

1. 영문과 찰스 몽고메리 교수의

Korean Modern Literature in Translation (http://www.klitit.com)



문 블로거다.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외국인 블로거들 사이에서 유명한 블로거가 있다. 우리대학 영문학과 찰스 몽고메리가 만든 ‘Korean Modern Literature in Translation’이라는 영문 블로거다.



유명한 한국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감상 등으로 가득하다. 한국문학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된 찰스 몽고메리의 블로그는 현재 52개국에 독자를 두고 있다. 또한 몽고메리 교수는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문학행사에 대한 소식을 올리면 상세한 정보를 요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며 “한국 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需要)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몽고메리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모임을 결성해 이들과 오프라인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나의 블로그는 한국문학을 알게 해주는 조그마한 창”이라는 찰스 몽고메리 교수는 덧붙여 “내 블로그를 통해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2. 경영정보학과 김경민 군의 IT 파워블로그 ‘나를 찾는 아이’ (http://trend21c.tistory.com)



총 816개의 포스트를 자랑하는 그의 블로그는 웹 2.0, 아이폰 등 각종 IT소식으로 가득하다.

그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그는 지난 2008년 다양한 분야의 포스트가 담긴 블로그들을 모아 놓은 메타블로그 사이트인 ‘올 블로그(All Blog)’에서 선정한 과학·기술 분야의 파워블로거로 뽑히기도 했다. 작년 겨울에는 아이피 주적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소개한 ‘정확도 95% 이상 아이피 추적’이라는 포스트가 독자들의 추천수가 높아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화면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소재를 찾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꾸준한 블로그 운영 비결을 밝혔다. 또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댓글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며 과거의 편협(偏狹)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3. 사학과 고유석 군의 ‘사진으로 이끄는 세상 속 이야기’ (http://blog.daum.net/tomatoa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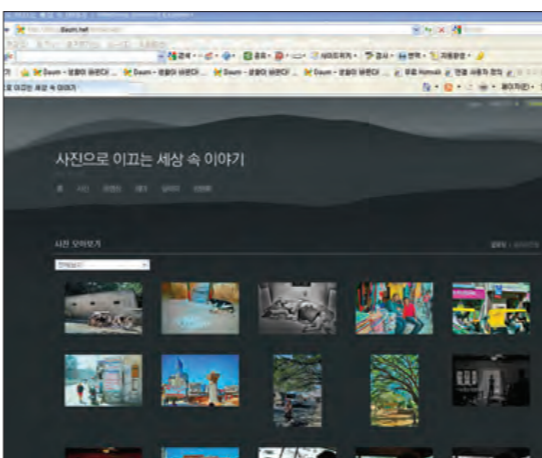
관한 한해 가장 뛰어난 성과와 활약을 보인 블로거에게 주는 ‘2006 블로거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블로거 기자 활동과 강의, 책, 출판 등 포토그래퍼로서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고유석군의 블로그는 “사진으로 이끄는 세상 속 이야기”다.

2006년에 처음 만든 그의 블로그는 전체 방문자수가 2백만을 육박하며 그의 블로그를 즐겨찾기에 추가한 사람의 수도 약 1600여명에 이른다.

고유석군의 블로그에는 DSLR 촬영 테크닉, 포토샵 리터칭 등 사진 전반에 대한 정보와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 등이 있다.

다음 사이트의 취재기자로 일하던 당시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한다. 진정 자신이 좋아하고 매진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토대로 꾸준히 자신만의 색을 입혀나감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파워블로거가 되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선아 기자 a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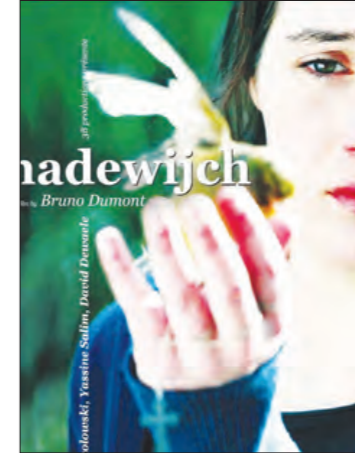
경영의 지면상영



(4) 하데비치

영화를 넘어 발견한 존재의 본질

믿음이란 질문이지 해답(解答)이 아니다. 믿음이 맹신과 다른 까닭은 쉽게 답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이정표 없는 길을 걸어 나간다. 상처가 벌어지고 피가 흘러도 고통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다. 그렇게 절대자를 향해, 어쩌면 절대자에 비친 자신을 향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분명 괴롭고 불편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이 사실 잔잔한 호수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일그러뜨려 줄 물결이 필요하다. 평온(平穩)한 마음에 일어난 파문은 분명 괴롭지만 그런 후에야 비로소 ‘나’를 제대로 ‘발’ 수 있다.



▲하데비치 (Hadewijch,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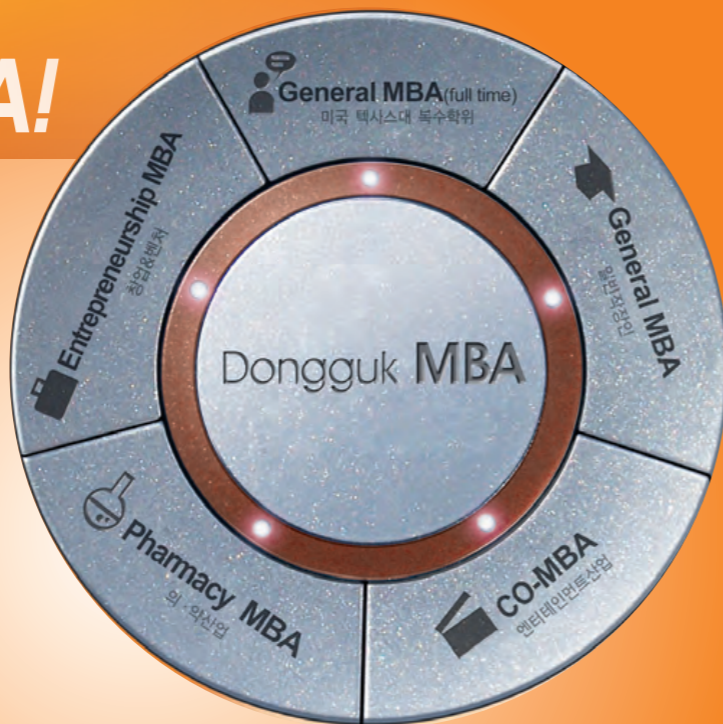
장르 : 드라마
감독 : 브루노 뒤몽

그렇기에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브루노 뒤몽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최근 프랑스의 가장 논쟁적인 시네아스트 중 하나인 브루노 뒤몽은 신작 ‘하데비치’를 통해 또 한번 인간의 실존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그의 영화는 관객이 의자에 편안히 몸을 기대지 못하도록 많은 논란과 해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브레송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시네마티크’ 한 것의 핵심이다. 자발적으로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하데비치는 신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고뇌하는 소녀다. 하지만 수도원의 규율을 마다한 채 고행을 통한 수행에 매달리는 그녀는 결국 수도원에서 내쳐져 세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바깥세상에서 만난 이슬람 소년 야신, 그의 형인 독실한 무슬림 니시르를 통해 그녀는 신과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풍경을 접한다. 허나 해답이라 믿으며 자신과 믿음을 교감하던 어떤 무슬림은 끝내 폭탄테러로 사망하고, 답을 쉽게 내어 주지 않는 잔인함으로 가득 찬 부조리한 세계는 그녀를, 혹은 그녀를 관찰해야만 하는 우리에게까지 절망과 무력감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끝내 희망적인 움직임은 화면을 떠날 수 없다. 브루노 뒤몽은 인간의 조건 자체로 존재하는 악을 통해 거꾸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문제적 감독이다. 자살하려는 하데비치가 수도원에서 일하는 전과자의 손에 구해진 엔딩이 이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인 까닭이다. 종교와 믿음에 관한 한 소녀의 방황을 통해 전작보다 더욱 첨예해진 질문을 영화적으로 폭발시키는 ‘하데비치’는 쉽게 답을 내어주는 영화는 아니지만, 관찰하고 질문하는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진정 영화 이미지의 힘을 믿을 수 있다.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즐기 위해 관람석에 몸을 맡긴 채 영화를 따라갈 수도 있다. 그것도 좋다. 하지만 영화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쉽게 이해되지 않고, 어쩌면 굳이 극장까지 찾아가서 마주치고 싶지는 않은 진실 혹은 물음들. 우리는 이런 불편함과 대면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굳이 그 먼 길을 달려 영화제까지 찾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일생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이다. 영화의 축제에서 모든 영화들은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믿음 속에 있다.

영화평론가 ·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석사 수료

최고의 특화 프로그램 동국 MBA!



2010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10년 6월 7일(월) ~ 6월 25일(금)
02) 2260-8884 ~ 5 / mba.dongguk.edu

세상을 비추는 힘 | 동국대학교 | 세상을 깨우는 이름

2010년 하계 17~18기 동국대 [HRDP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매 기수별 졸업생 평균 취업률 80%! 평균 만족도 92%!

1. 캠프명 : 17-8기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 ※ 프로그램 및 숙식, 유니폼 등은 무료 제공하나 참가비(3만원) 있음
- ※ 참가자 대상 : 한국표준협회 직장체험연수(활동우수자 1명), 한국표준협회 공개교육 수강권(활동우수자 2명)

2. 캠프(교육) 내용

- 교육형태 : 함속교육(3박4일)
- 교육장소 : 한국표준협회 연수원(경기도 안성 소재)
- 교육기간 : 17기(인문계열) - 2010년 6월22일(화)~6월25일(금) 18기(이공계열) - 2010년 6월25일(금)~6월28일(월)
- 모집인원 : 17기 - 50명(선착순 100명 모집 후 50명 선발) 18기 - 50명(선착순 100명 모집 후 50명 선발)
- ※ 선발방법 :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 접수순서(선착순 가점)점수

3. 모집대상 : 1~4학년 1학기생(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제외)

4. 모집기간 : 2010. 5. 31(월) ~ 6. 8(화) - 조기 마감 가능

5. 신청방법 : 취업지원센터(본관 3층) 방문신청 (문의 : 2260-3055)

- ▶ 1단계 : 학교 u-dreams에 로그인- 학사정보-본인의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
- ▶ 2단계 : HRDP 취업캠프 참가자기소개서(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취업지원센터로 제출
- ▶ 3단계 : 참가비 3만원 계좌입금(제일, 114-20-392576, 김해덕)
- ▶ 4단계 : 신청완료

6. 참가비 납부시 주의사항

- 입금기한 : 신청일 다음날까지(미입금시 선착순에서 제외되며 예비자로 전환)
- 환불기한 : 2010. 6. 16(수), 15:00까지(이후 환불없음)
- 입금자명 : 본인 이름으로 입금(타인이름으로 보낸 경우 취업지원센터로 반드시 연락)

7.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 2010. 6. 15(화), 17시 ~ 18시 다량관 세미나실

8. 선발자 발표 : 2010. 6. 10(목) 17시

9. 기타 문의 : 2260-3055

※ 캠프후기보기
http://www.dongguk.edu/html/student/center_main.jsp

취업지원센터

서양철학 관점에서 한국 간화선 특징 고찰

불교문화연구원 · 문화학술원 각각 간화선, 도시공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지난 28일 문화학술원에서 주최한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학술대회의 모습

우리대학 불교문화연구원과 문화학술원은 지난 28일 각각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문화연구원이 주관(主管)한 불교 세미나는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란 주제로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는 우리대학 현각스님이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정우 동교동 철학 아카데미 원장 등 5명의 박사가 참여했다.

기조발제에서 현각 스님은 '간화선의 전통과 그 현대적 수용'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현각 스님은 "우리나라 간화선은 고려시대 보조지눌이 대혜의 선법을 수용한 이래부터 전승되어 한국 간화선의 체계성이 형성된 이래로 간화선은 절곧 한국선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간화선의 연원(淵源)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우 원장은 '시간과 실제 - 청송 고형군의 존재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정우 원장은 "실재를 시간 너머의 무엇으로 볼 경우, 시간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세계는 환(幻)으로서 이해된다"며 "반면 시간을 실재로서 볼 때, 시간을 넘어서 나타나는 동일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선과 기호'란 주제를 발제한 신진영 교수는 "선이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며 "그 의미 가운데에서 있는 나를 마치 남처럼 바라볼 수 있으며,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경 교수는 "선(禪), 존재론적 평면화와 평등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평면화의 개념에 대해 "모든 것을 하나의 동일한 평면 위에서 하나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평면화"라며 "이러한 평면화는 각각이 갖는 모든 특정한 규정성을 추상함으로써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면화란 현행적인 모든 조건과 규정에서 탈영토화하여 절대적 미규정성을

향해 '잠재화'하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선은 단지 규정가능성을 갖는 미규정성의 잠재성에 머물지 않는다"며 "공적한 곳에 머무는 것, 그것은 그곳이 부처의 자리라고 해도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의 평면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충실한 행(行)을 할 수 있을 때, 현행성의 실천은, 평등의 정치학은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네 번째로 발제를 맡은 박인성 원장은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의 공명'이란 주제에 대해 발제했다. 박 원장은 두 가지 수행에 대해 "간화선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은 수행의 방식과 과정이 다르지만 이를 통해 얻는 열반의 성격은 동일하다"며 "다만 두 가지 수행의 차이가 있다면 열반을 보고 얻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 가지 수행은 수행의 방식이나 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두 수행 모두 극대화된 사마타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변희욱 연구원은 '알지 못하는, 간화(看話)의 지렛대 : 간화선에서 앎과 알지 못하는 의미'란 주제로 강연했다. 변희욱 연구원은 간화라는 지렛대에 알지 못하는 함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간화의 시작"이라며 "알지 못하기에 알고자 함(의심)이 시작되며, 알고자 함이 시작될 때 간화가 시작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알지 못하는 간화라는 지렛대의 받침점"이라며 "그것은 기존의 앎과 알고자 함으로 연결된 간화의 지렛대가 작동하게 하는 회전축"이라고 말했다.

〈문화지리와 도시공간 표상〉 세미나

한편, 이날 우리대학 문화학술원 및 한국문화연구소가 주최한 문화학술원 정기 학술대회가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이란 주제로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우리대학 이혜은(지리교육), 김춘식(국어

국문), 김애주(영어영문) 교수 등 7명이 참석해 발표를 맡았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혜은 교수는 '문화지리적 관점에서 본 도시'에 관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의 공간이라 인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떤 특성을 지닌 공간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거주환경은 다르며 그 특정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시란 인간이 거주하는 일상공간이며 거주문화지역"이라며 "도시가 지닌 자연·인문·사회적 현상이 가미되어 도시의 지역성이 특정 지어지며 이는 끊임없이 변천한다"고 말했다.

1부 제 1 발표를 맡은 신승모 강사는 '식민지시기 경성에서의 '취미'-재(在)경성 일본인의 이념화 변용과정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신 강사는 이에 대해 "식민지사회가 서울이라는 '장소'를 재편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을 동시대의 '취미' 담론을 통해 검토하고자 했다"며 "'취미'라고 하는 개념은 식민지시기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수렴되지 않고 복합적인 의미를 보이며 혼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락'이란 용어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2 발표에서 김춘식 교수는 '식민지 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 유리, 강철, 대리석, 지폐, 잉크가 끊는 도시'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도시와 군중의 상관성을 '산책자의 시선'에서 발견한 보들레르 이후, 근대성은 도시라는 새로운 장소와 공간이 부여한 '감수성의 한 형식'으로 종종 표상되곤 했다"며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인식, 감각의 변화가 근대성을 나타내는 표상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모더니티는 단순한 제도, 시스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감각에 연관된 '장소와 지형'의 문제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2부 제 1 발표서 염복규 연구원은 '일제 하 경성 도시 개발의 양상과 '식민지근대'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제 하 경성도시개발의 본질은 '일본이 도입한 근대의 이식'이었으며, 일제는 식민통치의 시작에서 끝까지 스스로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 2 발표에서는 김애주 교수가 '도시주의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시애틀은 미국을 새로운 '집'으로 결정하고 동화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온 일본계 미국인들의 역사의 집적체"라고 말했다. 또한 "시애틀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에서 일본인의 영토화에 대한 욕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현장 인터뷰

“나를 뛰어넘는 인재 양성이 목표”

우리대학 의생명공학과 김성민 교수가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우수한 대학을 제치고 140억 원 규모의 정부 사업을 수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보건의료기술 고숙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 인해 김 교수는 향후 5년 동안 연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연간 3억 원씩 5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우리대학 또한 연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을 김 교수에게 지원한다. 이를 합산하면 김 교수가 5년 동안 수주한 금액은 총 140억 원이다.

의생명공학과 김성민 교수는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2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주관한 '의료기기산업발전 유공자표창' 수상한 바 있다. 또 2005년부터 2년간 5건의 특허출원을 받았다. 2009년부터 김 교수는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돼 의료기기 분야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고숙화사업'은 보건의료현장의 아이디어와 기초연구성과를 관련 산업의 제품화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 교수는 '동국대학교 성장형 가치 창출 의료기기 개발 촉진 센터'라는 사업계획서로 제1회 '보건의료기술 고숙화사업'에 선정됐다. 김 교수가 지원한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의료인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아이디어 검토 및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확보, 그리고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130억 규모 과제 수주한 김성민 (의생명공학과) 교수

주요대학 경쟁 이겨내 기뻐... 연구원들에게 감사

김성민 교수는 사업 선정 소감을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다"며 "6개월 동안 연구에만 몰입해 준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선정과과정에서 우리대학은 신청 대학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대학은 의·생명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지자체의 전문적인 지지 받기에 좋은 평가를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기술 고숙화사업' 선정으로 우리대학은 총 140억 원 상당의 연구비 수주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최단시간 내에 선두 그룹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대학이 이 분야에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며 "이를 조기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바이오, 공대, 이과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연구를 할 뿐 아니라 국가 지정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한 대학병원급 기관과 국내 제조업체, 글로벌 기업,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해외 연구 연계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학교 성장형 가치 창출 의료기기 개발 촉진 센터'가 일산병원 옆 산학협력관에 설립됨에 따라 연구 진행에 있어 서울캠퍼스와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서울캠퍼스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측과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익모델을 잘 구상해서 연구비 수주가 종료된 후에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최종목표는 국내 의·공학 관련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구 및 강의에 집중하는 김성민 교수, 그의 바람처럼 이번 사업 선정이 그의 목표를 실현하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

임정민 수습기자 jim428@dongguk.edu

연구소 탐방

〈4〉 전자불전 문화콘텐츠연구소



▲ 전자불전 문화콘텐츠연구소 황희식 소장

불교문화의 활성화가 한국 불교의 원동력

원효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이자 종교인이며 민중교화에 힘쓴 실천가로서 14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되었다. 국내에서도 '원효대사와 해골 물' 이야기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에 대한 스토리뱅크 개발 사업과 더불어 한국불교텍스트의 전산화 사업, 사이버 박물관 건립 등 한국불교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연구소가 있다. 우리대학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바로 그곳이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지난 1997년, 한국불교텍스트의 전산화와 불교 전자도서관 구축 등 전자불전 관련 제 분야의 연구 및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선학과 한대식(보광) 교수를 비롯한 전자불전 관련 여러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설립 초기에는 불교텍스트의 전산화를 위해 '전자

불전연구소'의 이름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06년 불교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연구소 이름을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로 변경했다. 현재 한대식 소장과 더불어 12명의 연구원이 불교문화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지난해 원효대사를 소재로 한 스토리뱅크 사업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스토리뱅크 사업이란 특정 주제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고 완성해가는 사업이다. 원효와 관련된 자료에서 33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뽑아 시놉시스, 해설, 시나리오 등을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구축, 인물과 복식을 2D·3D로 개발했다. 현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과 문화콘텐츠

개발전문업체 (주)여금과의 공동사업을 진행해 본 연구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향후 이 사업은 원효를 소재로 한 드라마, 연극, 원효로드 개발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10여 년 동안 한글대장경 전산화,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사이버 박물관 건립, 앙코르와트의 디지털 콘텐츠화 등 불교텍스트의 전산화 사업과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공간부족과 전임연구원 부족으로 연구에 매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불교문화의 콘텐츠화와 불교텍스트의 보급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해 한대식 소장은 "현재 많은 불자들이 전자불전과 불교문화콘텐츠를 접하고 있으며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해주고 있다"며 "연구소에서는 불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수정작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

했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지금도 불교텍스트의 전산화와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재 23개국의 불교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세미나에서 전자불전 관련 국제 표준화를 제정할 계획이다.

인문학 분야의 투자가 저조한 이때, 설립 때부터 지난 10여 년간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주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한대식 소장은 "예산 수주를 통한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넘어서, 불교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전공과정을 개설해 이 분야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도 불교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을 한대식 소장 12명의 연구원, 이들이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의 성과와 전망은 밝을 것이다.

강기모 수습기자 km1004@dongguk.edu

화제의 책

‘바보’가 떠나며 남겨둔 ‘꿈과 신념’



운명이다

지은이 노무현
펴낸곳 노무현재단
22,000원 / 391쪽

평생을 바보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바보로 죽어간 사람. 강자에겐 누구보다 강하게, 약자에겐 한 없이 약하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지난해 23일 서울광장은 노란 풍선과 시민들의 오열로 가득 채워졌다. ‘바보’ 노무현을 기리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눈물을 흘린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았다. 시민들은 아직

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의 서거 1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에 참여해 다시 한번 그를 위해 눈시울을 붉혔다. 그를 향한 시민들의 이러한 마음 때문일까, 지난달 26일 그의 자서전 ‘운명이다’가 출간됐다.

‘운명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이해 고인이 남긴 저서, 미발표 원고, 메모, 편지 등과 각종 인터뷰 및 구술 기록을 토대로 출생부터 서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시간순으로 정리한 책이다.

‘운명이다’는 앞뒤에 각각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고 ‘출세’, ‘꿈’, ‘권력의 정상에서’, ‘작별’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이 책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성장 과정과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련, 대통령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었던 희망과 좌절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읽는 이로 하여금 ‘인간 노무현’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운명이다’는 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 초안을 위해 메모를 시작하던 서거 직전의 상황을 담은 프롤로그에서부터 시작된다. 프롤로그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내 인생의 실패는 노무현의 것일 뿐, 다른 누구의 실패도 아니다...나는 이 고통이 다른 누구에겐가

약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다”며 집필 이유를 밝힌다.

1부 ‘출세’에는 노 전 대통령의 성장과정 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유년 시절, 지기를 싫어하며 반항적인 성격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진솔하게 엿볼 수 있다.

2부 ‘꿈’은 부립사건을 맡은 이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게 된 이야기부터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에서 대통령후보로 경선에 나서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한 3부 ‘권력의 정상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재임기간의 일을 담고 있으며, 4부 ‘작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후 고향으로 내려가 서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이 담겨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시민이 되어서 이루고자 했지만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인간 노무현’. 에필로그에서 유시민이 밝힌 대로, 그가 생명을 던진 자리에는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노 전 대통령의 꿈과 신념만이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아, 그의 인생과 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책과 함께 그가 남긴 꿈과 신념을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이주의 책

새내기 작가 윤고은의 ‘발칙한 상상(想像)’



인용 식탁

지은이 윤고은
펴낸곳 문학과 지성사
10,000원 / 397쪽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문단(文壇)의 주목을 받아온 젊은 작가 윤고은의 첫 번째 소설집이 나왔다. 2008년 발표한 첫 장편소설 ‘무중력 중후군’에서 작가는 달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설정(設定) 하에 그로써 일어나는 사건(事件)들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이미 검증(檢證)된 상상력 있는 작가답게

소설집 ‘인용 식탁’에서도 그 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기발한 상상력의 향연(饗宴)이 펼쳐진다. ‘인용 식탁’에 수록(收錄)된 소설은 모두 9개다.

표제작인 ‘인용 식탁’은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인베이터 그래픽’도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무명작가로 날마다 백화점 화장실에서 노트북으로 소설을 쓴다. ‘달콤한 휴가’에서는 작은 빈대 때문에 정상적(正常的)인 인간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보는 듯하다.

“책을 펼치는 행동은 문을 여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작가의 말처럼 우리는 또 다른 상상의 문으로 들어간다. 윤고은의 상상력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기반(基盤)으로 한다. 파팍한 현실 위에 상상이라는 달콤한 소스를 뿌려 그만의 언어로 버무리는 것이다. 아주 잠시, 작가의 손끝이 스쳤을 뿐인데도 현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탈바꿈된다. 이것이 윤고은 작가의 장이다. 무인호 텔에 갇힌 채 결국 야생동물화 되어 도로 위

에서 죽고 마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씩씩한 ‘로드킬’. 이 소설은 한국사회의 폐쇄적(閉鎖的)인 성격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이 가미(加味)된 비극적인 내용이다. 2004년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登壇)한 작가의 데뷔작인 ‘괴어상’ 또한 수록됐다. 도발적(挑發的)인 소재와 신선한 발상이 대학 문학상의 수상작답다.

윤고은 작가의 소설은 트랩펄러와 같다. 소설적 상상력의 진폭과 그로 인한 현실의 변신이 어디까지 튀어오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미에서다. 힘차게 발을 구르며 뛰면 밤하늘의 달까지 닿을 수 있을 듯도 하다. 그러다 보면, 작가의 상상력처럼 달이 한 두 개쯤 늘어나는 것은 예사일이다. 그러나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다. 작가를, 그리고 작가의 상상을 뛰어 오르게 만드는 주제(主體)는 바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개쯤 언제나 현실 그 자체(自體)에서 상상을 괴워낸다. 그땐 밤. 이처럼 두 개쯤 언제든지 틈 없이 휘몰아치는 아홉 개의 ‘상상 돌풍’속으로 독자(讀者)들을 데려간다.

김보혜 수습기자 boo@dongguk.edu

유지나 교수의 독서산책

‘행복의 기술’로 달라이 라마에 접속하라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지은이 달라이 라마
펴낸곳 김영사
9,500원 / 351쪽

라고 해석한다.

책과의 만남은 자신을 형성해가는 자양분이자 세상보기의 지혜로운 창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현자이신 달라이 라마의 ‘행복의 기술’에 접속(接續)하는 것은 축복이다.

달라이 라마가 정신과 의사가 일상의 문제에 대해 물으면 답하는 식으로 책이 구성(構成)돼 있다. 삶의 상처, 외로움과 이별, 억압과 분노(憤怒)등 일상적 문제를 다룬다. 그 중에서도 외로움의 극복과 행복 추구 기술에 관한 답이 가치있게 실용적(實用的)이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며, 그것은 자신만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의 기술임을 들려준다.

게다가 종교인이면서도 그는 종교해방론을 역설(力說)한다. 인류가 60억인데, 모두 자기만의 종교·영성이 필요하니 60억개의 종교도 가능하다면서 종교의 세다툼을 넘어선 자비로움을 보여준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독신(獨身) 수행자에게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정신과 의사가 ‘외롭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라고 명쾌(明快)하게 답한다. 자신이 입은 옷에도 이미 많은 이들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땀 흘리며 면을 재배한 농부, 그 면을 섬유로 짜낸 이들, 이 감을 재단하고 바느질한 사람들, 그 옷을 배당한 사람들이 총망라(總網羅)된다. 그러나 외로움 딱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답, 그런 깨우침이 너무 근사해서, 홀로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나를 둘러싼 사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여러 사람들의 공력을 느끼게 되었다. 사랑하는 이들이 보내준 카드, 책과 화분... 여러 사람들의 노고(勞苦)와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에 행복해진다. 달라이 라마 따라잡기는 확실히 효력(效力)이 있다. 특히 스펙쌓기로 파팍한 대학생활에 지친 친구들, 상업주의가 판치는 캠퍼스에서 생기를 잃은 학생 친구들에게 ‘행복의 기술’을 만나보라고 권한다.

특히 영어교육에 스트레스 받는 이라면, 그의 영어쓰기도 배워볼만 하다. 가장 단순한 영어 단어 몇 개를 구사하며 매우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그의 어법(語法)은 지혜롭게 외국어학기의 비결(秘訣)을 보여준다. 영어책을 구해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영어공부와 마음공부를 동시에 하니 일석이조 아닌가.

※ 팁: 정치적 이유로 한국방문이 여전히 불가능한 달라이 라마의 일상을 그린 다큐 ‘선라이즈 선셋’이 얼마 전 개봉되었으니 변방(邊方)의 영화관에서 찾아보기를 간곡(懇摯)히 권한다.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주의 이색 도서

소설로 접하는 좌선(坐禪)의 세계



커피와 달마

지은이 성재현
펴낸곳 한결음 더
12,000원 / 278쪽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 우리에게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물질적 풍요가 참된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아찔한 속도로 발전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사람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잠시라도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로 쉬

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대 사회의 물질적 풍요란 거짓된 행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대학 출판사 ‘한결음 더’에서 출판한 ‘커피와 달마’가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현재 출판계에서는 명상 관련 서적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고 미술이나 문학이 심리 치료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반영된 듯 좌선에 관한 관심도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이렇듯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맞춰 출판된 ‘커피와 달마’는 참선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현대인들에게 참선하길 권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선을 어렵게만 생각한다. 참선을 단순히 스님들과 같은 수도자들이 득도를 위해 행하는 특별한 행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참선을 할 때 ‘무아지경’, ‘무념무상’ 등 좌선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에 집착하고, 결국 참된 참선을 실천해 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다. 그렇다면 과연 참선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행일 뿐일까.

소설 속 주인공 역시 다를 바 없다. 그는

불교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를 부정하던 중 달마암의 스님을 만난다. 스님을 통해 좌선을 접하게 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으로 정체불명의 동호회에 가입해 철야 정진도 불사한다. 주인공에게 좌선을 알려준 달마암의 노스님은 비바람을 맞으며 높은 바위에 앉아 버티고, 일부러 차가운 물속이나 땀뻘 아래에서 좌선을 하며 버티는 행위는 관심을 끌기 위한 서커스일 뿐 좌선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어서 부처님도 고행은 무익한 행동임을 깨닫고 배격하셨다며 좌선의 본질에 대해 친절히 얘기해 준다. ‘커피와 달마’의 재미는 주인공이 변모해가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이 주인공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번민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커피와 달마’는 이렇듯 철저히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좌선에 접근한다. 좌선이 궁극했던 사람들, 좌선을 실천해보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자신 없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명쾌한 해답을 내려 줄 것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불교와 인간에 대한 본격 입문서



불경 이야기 외 2권

지은이 고영섭
펴낸곳 신아사
총 3권 30,000원 / 497쪽

우리대학 고영섭 교수가 5월 중 ‘불경 이야기’, ‘인문학적 인간’, ‘불교적 인간’을 출간했다.

‘불경 이야기’는 1월의 경전 아함경부터 12월의 경전 천수경까지 총 12부본으로 나뉘어 있으며, 불교 경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담아낸다.

‘인문학적 인간’은 저자가 인문학, 동양학, 한국학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읽은 글과 글 속에 담겨있는 뜻을 기반으로 저술

됐다. ‘인문학적 인간’은 ‘인간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 등 2부로 나뉘어 있다. ‘불교적 인간’은 불교 경전을 쉽고 명료한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됐다.

지난 세기만 해도 우리는 한자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현재는 한글 중심의 시대 속에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문화의 단절과 이탈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려운 불교 경전을 쉽고 간단한 현재의 언어로 재해석 한 것이다.

저자는 ‘불교적 인간’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불교 공부하는 방법에서 비롯되어 서원에서 마감된다고 한다. 발심은 ‘발아복다라삼막삼보리심’의 거듭 줄인 말로 그 뜻은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교적 인간’은 붓다의 가르침인 ‘중도 연기’에 대한 사무친 통찰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를 뜻한다. 독자들은 ‘불교적 인간’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조 광 희
회계학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공기업과 국제회계기준

정부는 올해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에 각각 2011년, 2013년 국제회계기준(K-IFRS)을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하도록 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해외사업 수행 및 자금 조달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기업의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조달 금리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공시로 인해서 자회사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가치의 평가로 전환시킴으로써 공기업 관리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도로, 댐, 항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국민생활편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은 묵과(默過)할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성항목과 금액에 영향을 미쳐 국민생활편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금산정근거가 되는 재무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원칙중심회계를 지향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로 인해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은 일부 훼손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 관리 선진화도 좋지만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선택가능한 회계처리중 어떠한 회계처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학계, 실무업계 및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과정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다.

예로, 공기업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조항으로써 K-IFRS 2112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며 일정기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민간부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적용범위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 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원칙중심의 회계에 적용범위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사업으로 규정했다면 공기업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의의 장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해의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만칼럼

공재 필
법학과 이졸·세티그룹캐피탈
할부금융본부과장

신용불감증

졸업 후 씨티그룹 내 은행, 캐피탈 등에서 할부금융(金融), 여신금융, 금융리스 등의 업무를 해오고 있다.

소매금융의 영업 관리, 대출심사, 채권관리, 상품기획 등의 업무에서부터 주택, 차량, 내구소비재, 산업설비 등의 리스를 포함한 할부 금융까지 거의 10년 정도 여신(與信)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고객들의 신용불감증, 도덕적 해이, 그리고 소비 지향적 대출의 증가가 사회 전반에 만연(蔓延)해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채무(債務)를 사용한다. 사업자금, 주택 구입자금, 차량할부, 병원비, 투자, 학자금, 기타 가계자금 등등. 대출은 분명 소비적인 측면이 크지만, 미래에 또 다른 이익창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 즉 대출이자(貸出利子) 이상의 이익 창출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금융기관들은 경쟁 하듯 무분별하게 가

계대출을 부추기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부업체는 이자 상한제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법 대출 중개업체는 각종 단속을 피해 가며 불건전한 악성채무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신용상태 악화는 물론 금융회사의 재정적 리스크까지 가중(加重)시키고 있다.

더욱이 요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등 다양한 신용구제방안을 악용한 전문법률상담소나 전문브로커까지 생겨 악성대출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도덕적 해이(解弛)까지 조장하고 있다.

현재 제 때 돈을 갚지 못하는 금융 인구는 약 6백만 명으로 경제 인구 2,500만 명 중 4명에 1명 꼴로 제대로 된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을 도입했는데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자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근부친지나 사전준비가 부족한 채 시행됐고,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처럼 정교한 심사시스템, 지역밀착형 사전, 사후관리 프로그램, 연체관리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회성 선심정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데 반해 부채는 5.1%나 증가했고, 순 가계저축률은 5년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3.9%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민 1인당 카드 사용액은 미국보다 많은 만큼 무분별한 과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국가나 기업도 신용상태를 평가 받아 재정 정책을 시행하듯 개인이나 가계도 신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 받아 가계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국민 개개인의 자각(自覺)이 필요한 때다.

이런 자각을 통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불감증, '버티면 된다'는 식의 채무불감증, 그리고 도덕적 해이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생칼럼

김상완
식품산업관리학과 3학년

대동제를 마치며

지난 1주일 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대동제가 진행됐다. 평소엔 취업준비, 학점관리, 스펙 쌓기 등에 몰두해 온 우리의 일상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벗어나 인생이라는 자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주점 일색(一色)이었던 대동제와 달리 올해는 특히 대동제라는 그 이름처럼 1만 3천의 동국인 학우 대부분이 축제(祝祭)에 함께 참여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번 축제 때만은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실 이번 대동제처럼 만해광장에 수많은 학우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하나의 행동으로, 다 같이 '오늘만은 즐기고 싶다'라는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는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만해광장에서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은

최근 몇 년동안 보기 드문 명장면이었고 흔들던 손의 물결은 감동의 연속이었다. 그 동안에 쌓여왔던 모든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신나게 소리치며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동제는 연예인의 축제가 아닌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축제다. 동국인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만해광장에서 보여진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 연예인이 등장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열광하며 다 같이 하나가 되지만, 정작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의 동아리 밴드공연, 합합 공연, 마술 등의 순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

제로 자리를 이탈(離脫)하는 등의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였다. 특히 백상대제전에서 그 전날과는 사뭇 다른 학생들의 참여도가 안타까웠다.

이러한 모습은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준비해온 친구들의 공연과 끼를 같이 보고 열광하며, 그 기쁨과 환희를 공유하는 축제의 주인공은 우리 1만 3천 학생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올해 축제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일반 학우들의 참여가 있었던,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축제를 즐기는 주체가 우리들 자신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올바른 주체의식이 섰을 때, 좀 더 선진적이고 성공적인 대동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만평



백 선 아 기자 amy@dgu.edu

2010년 하계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10년 하계 인턴십(현장실습)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의 인턴십을 통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더불어 연수지원금과 현장실습 학점 인정의 혜택이 있는 본 프로그램에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10년 하계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
 - 주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 연수기간: 2010년 하계방학 중 (2개월)
 - 기업별 모집인원 및 부문: 홈페이지 내 취업공지 참조
 -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10.5.26(수) ~ 6.4(금) 09:00 ~ 17:00, 취업지원센터(본관3층)
 - 제출서류: 신청서 1부(소정양식), 성적증명서/자기소개서1부(자유양식),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선발일정
 - 가. 서류접수: 2010.6.4(금) 17:00까지 (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
 - 나. 기업 면접 및 최종 연수자 확정: 2010.6.14(월) ~ 6.18(금)
 - 다. 사전직무교육 및 계약서 작성: 2010. 6월 4째 주 중 (세부일정 추후안내)
 - 연수생 지원
 - 가. 학점: 전공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최대 3학점 (과목명: 현장실습, 성적: P/F 처리)
 - ※ 학점은 현장실습 규정에 의거 학점인정이 가능한 참여자만 인정하며,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참여자는 연수지원금만 지원함
 - 나. 노동부 연수지원금 지급: 월 40만원(결근하였을 경우에는 출근일만금 일일지급)
 - 다. 기업 자체 연수수당 지급: 일부 기업에 한함
 - 기타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취업지원센터 (2260-3053 / job@dongguk.edu)
- 2010년 하계 대학생혁신형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
 - 주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연수기간: 2010년 하계방학 중 3주~4주(연수생과 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기업별 모집인원 및 부문: 홈페이지 내 취업공지 참조(6월 첫째 주 공지예정)
 - 접수기간 및 접수처: 6월 첫째 주 예정 (취업지원센터에서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1부(소정양식), 성적증명서/자기소개서1부(자유양식),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선발일정(예정)
 - 가. 서류접수: 2010. 6월 2째 주 까지
 - 나. 기업 면접 및 최종 연수자 확정: 2010.6월 3째 주 까지
 - 다. 연수참여: 2010. 하계방학 중 자율적으로 실시
 - 연수생 지원
 - 가. 학점: 전공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최대 3학점 (과목명: 현장실습, 성적: P/F 처리)
 - ※ 학점은 현장실습 규정에 의거 학점인정이 가능한 참여자만 인정하며,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참여자는 연수지원금만 지원함
 - 나. 중소기업청 연수지원금 지급: 참가자 1인당 40만원 일일지급
 - 기타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안내
 - 문의: 취업지원센터 (2260-3053 / job@dongguk.edu)

학 생 경 력 개 발 원

2010 불교대학 불교수행 (사찰실습) 신청 안내

본 대학 학생이 산사 생활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찰 실수를 실습하고, 참선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

- 1.참석대상 : 불교대학 재학생 전원 (스님 학생 제외)
2. 기간 : 2010. 6. 22(화) ~ 6.25(금) 3박 4일
3. 장소 : 수원 용유사(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 4.참가비 : 없음
5. 신청 안내
 - 가. 신청기한 : 2010. 6. 8(화)
 - 나. 신청장소 : 불교대학 학사운영실 (전화 02-2260-3098)
6. 참가 유의사항
 - 가. 집결 일시 및 장소 : 2010. 6. 22(화) 12시, 정각원 앞
 - 나. 준비물 : 운동화, 모자, 세면도구(치솔, 치약, 수건 등) 등 개인 필요 준비물
 - 다. 참가자 유의사항
 - 참가 중 무단 이탈 불가
 - 참가자에 한하여 장학 등 각종 신청 및 지원시 가산점 부여
 - 참가자에 한하여 현장실습학점으로 인정 가능

불 교 대 학

응용불교전문학술지 「불교문화연구」 논문공모 및 ‘만우논문장려금’ 안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불교학 논문집 「불교문화연구」를 발간해왔습니다. 그동안 불교사상, 불교역사, 응용불교 등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취합하여 게재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발간 예정인 제11호부터는 「불교문화연구」를 응용불교연구를 위한 전문학술지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교문화연구」에 투고한 응용불교논문 가운데 총 7편의 논문을 엄선하여 평당 150만원의 논문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만우 조일환 선생의 출연(出捐)으로 마련하며 회사자(善捨者)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금의 이름을 「만우논문장려금」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불교가 이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재해석하고 현대 학문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접목시키는 응용불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교학자 또는 불교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불교에 조예가 깊은 일반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논문투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기존에 출간되었던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리지 않았던 독창적 논문이어야 한다.
2. 불교와 인접학문, 사회현상을 접목시킨 응용불교논문을 권장하지만, 응용불교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순수불교학(불교사상, 불교역사) 논문도 투고 가능하다. 순수불교학 논문의 게재 편수는 3편 이내로 제한한다.
3. 논문제출 자격: 석사학위 이상 또는 출가 승려
4. 투고된 '응용불교논문' 가운데 심사평점 순위에서 상위 7편의 논문에 대해 평당 15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그 이외의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평당 2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5. 논문 제출 마감일: 2010년 9월 30일
6. 논문의 분량: 주석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80~150매)
7. 모든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8. 논문 작성 요령: 별첨한 「불교문화연구」 논문 작성 요령을 따른다(한글요약, 한글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영문 주제어 등 안내).
9. 투고 방법: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이메일(bulmunyeon@dongguk.ac.kr)로 논문을 송부한 후 전화(054-770-2506)로 통지한다.

불교문화연구 편집위원장 이불춘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김성철

-경북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화: 054-770-2506 / E-mail: bulmunyeon@dongguk.ac.kr

불 교 사 회 문 화 연 구 원



시론

월드컵 응원의 상업화

김 사 옴
한국체육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개막(開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 세계는 벌써 축구공 하나에 열광하고 지구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분위기에 들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구호와 거리응원 그리고 붉은 악마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 상징이자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포식성을 갖춘 자본주의의 폐해(弊害)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주목의 경제(economy of attention)' 원리가 이용된 것이 월드컵 거리 응원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거리 응원의 메카이자 공간적 상징인 서울 광장(廣場)은 어두운 일체의 역사와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 이제는 시민의 문화적 축제 공간이자 시민 화합의 광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월드컵을 통해 서울광장은 특정기업들의 투명하지 않은 독점사용과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양극화의 문

제를 야기시켰고, 공공성의 훼손은 물론 거리응원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적 공간이자 가치를 지닌 서울광장은 기업이 우선되어 단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그 공공성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광장과 같은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된 만큼 서울시민들을 위해 열려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다중의 시설로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안의 마련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광장이 특정기업에서 응원권 독점(獨占)사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얼마 전 서울시는 '서울광장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서울광장 월드컵 응원 때 기업으로 노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 공간으로 서울광장을 개방하고, 월드컵 기간 동안 거리 응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 내 화장실 개방, 아리수 제공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는 특정기업이나 특정단체가 월드컵 응원전의 상업주의적 주도권(主導權)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서울광장의 조성목적과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참여 단체나 기업들의 주도가 아닌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으로 이제는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남아공 월드컵 기간 동안 서울광장은 붉은 물결의 응원전이 가열(加熱)될 것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후부터라도 대규모 응원전은 시민들의 자발(自發)적인 참여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월드컵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와 함께 늘 상상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손 잡고 단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滿喫)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적인 유형가치로서 존재하기를 염원(念願)한다.

사설

20대, 투표로 세상을 바꿔 나가자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불과 이틀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전 국민은 각 후보자의 공약과 자격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풀뿌리 민주주의, 국민자치를 품소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견(政見)을 대표해 행사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소중한 기회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는 저조한 투표율로 고전(苦戰)을 면치 못해왔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심각하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31.2%,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33.9%에 그쳐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008년 총선 때는 전체 투표율이 46%인데 비해 20대 투표율은 21.8%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20대 유권자들은 정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20대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하고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자각(自覺)하지 못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한다. 20대도 예외일 수 없다. 현재 20대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과 고액 등록금 등 산적(山積)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을 선거에서 찾아야 한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임기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순간에 대해 20대들의 생각을 투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20대가 촛불을 들고 일어나 사회에 큰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20대는 역대 최대의 투표율로 변화의 새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더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표가 선거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시간강사의 비극', 대학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광주에 소재한 모 사립대 시간강사였던 서 모 씨가 대통령 앞으로 한 장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다. 교수직에 임명받는데 수억 원을 요구받고, 지도교수를 위해 논문을 54편이나 대필했던 서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내용을 폭로(暴露)했다. 서 씨의 폭로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사와 관계없이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대학에서 교수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5만 5천여 명으로 이중 전업(專業)강사는 3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학 전체 강의의 55% 정도를 담당한다.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3~6만 원 정도로 전임교수 임급의 10~20% 수준이다. 일부 대학을 빼고는 4대 보험료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도 전임교수들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고, 언제 밥줄이 끊길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제 최고 지식 집단의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안전망의 문제다. 이들과 똑같이 학위를 취득한 정규직 교수들도 정작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에는 무관심할 뿐이다. 시간강사들에게 동료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이들을 애써 못본척 하는 교수사회의 모습에선 서글픔마저 느껴진다. 스스로 배출해낸 인재들을 방치하고 애써 외면하는 대학에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대학당국과 정부, 그리고 교수사회를 비롯한 대학구성원들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더 이상의 비극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메아리

독서망양(讀書亡羊)

김 윤 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독서망양(讀書亡羊). '장자'의 변무편에 보면, 사내종과 계집종 둘이 함께 양을 지키고 있다가 둘다 그만 양을 놓치고 만 이야기가 나온다. 계집종인 곡(穀)이 사내종인 장(臧)에게 어찌된 일인가 묻자, 장은 "죽간을 끼고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곡은 "주사위를 가지고 놀다가 양을 잃어 버렸다"고 말했다. 둘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독서망양은 '책을 읽다가 양을 잃었다는 말'로, 다른 일에 정신을 팔다가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다. ▲지난 5월 20일 천안함 진상(真相)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며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답화

문(談話文)을 발표하고 '북한선박의 해상교통 통행 불가,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무력침범 시 즉각 자위권 발동과 군 전력의 획기적 강화' 등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적 강경 발언만 쏟아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惡化一途)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정치적 합력투기에 한창이다. 민주당 등 야당 대표와 한형승 서울시장, 유시민 경기자 후보 등은 지난 28일 여의도공원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현 정권의 선거용 전쟁놀음에 투표로 심판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呼訴文)을 발표했다. 또 "우선 군사재판을 열어 경제·정보·작전·지휘통제 등의 실패에 대해 균형법 위반 혐의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20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대북 응징'을 요구했다. 언제 어

디서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다. ▲전쟁발사문을 퍼는 정부도 옳지 않지만, 전쟁을 이용해 보수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려는 한나라당이나 일촉즉발(一觸即發)의 위기에서 군사재판을 열어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민주당 등의 야당들의 행태(行態)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이런 모습은 책을 읽다가 양을 놓친 '장'이나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양을 잃어버린 '곡'의 이야기처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 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셈이다. '국민 없는 정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독서와 주사위 놀이에 정신이 쏠려 정작 중요한 양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당과 야당은 선거라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민이라는 '양'을 지키는 일을 강구해야 할 때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유훈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정웅재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국제공인 Microsoft Office 자격증

MOS특강 & ICDL, 컴활 1·2급

동국대학교 전산원이 함께 합니다.

구분	기간	시간	과목	수업일자	
MOS 광범반	1차	8/22~7/15	오전 10:00~12:30	1주 : Power Point 2주 : Word	매주 화~일 매주 월요일 수업중 시험
	2차	7/20~8/16	오후 14:00~16:30 하인 18:00~20:30		
MOS 추밀반	1차	8/28~7/18	토 14:00~18:00	3주 : Excel 4주 : Access	매주 토~일 토요일 12:00 시험
	2차	7/24~8/15	일 13:00~18:00		
ICDL 광범반	1차	8/22~7/19	오전 10:00~12:30	컴퓨터일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매주 화~일 매주 월요일 수업중 시험
	2차	7/20~8/16	오전 10:00~12:30		
컴활1급 광범반 합기/합기	8/21~7/16		오후 13:00~18:00	컴퓨터일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매주 월~금 매주 금요일 14:00시험 14:00시험
	8/21~7/16		오후 16:00~18:30		

전산원 MOS Master 및 ICDL 교육과정 특징!!

- ▶ 4주당실과정, 시험 합격률 97.8% (통계청기준 MCAS 97.9%, ICDL 97.2%)
- ▶ 교재 무료제공, 교육후 전산원 교육정보에서 시험 응시
- ▶ 합격시 무료 재수강 가능, 과목당 시험응시료 할인

교육비
가. MOS(MOS 2007버전) MASTER과정 : 180,000원(교재4권 포함, 공시료 : 186,000원 후후 납부)
나. ICDL과정 : 120,000원(교재 포함, 공시료 : 132,000원 후후 납부)
다. 컴활1급과정 : 160,000원, 컴활2급과정 : 120,000원
(합기·합기, 교재2권 포함, 공시료(1·2급 중합) : 합기-10,500원, 합기-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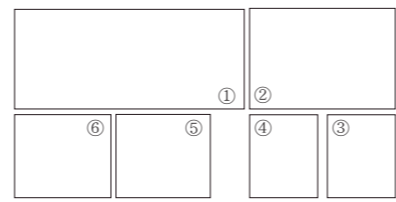
특강 신청방법 : 홈페이지 인터넷전원 후 수선과 납부 (전화이메일 or 전산원 방문)
접수기간 : 2010. 8. 1(화) ~ 31(목)까지 선착순 접수
접수처 : 전산원 홈페이지(www.dguc.ac.kr) 또는 학사서비스팀(전화 584)
문의 : 전산원 학사서비스팀(2290-3522, 3535)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 전산원 홈페이지 참조

동국대학교 전산원 MOS & ICDL 공인시험센터

금주의 식단

월(5/31)	갈비경단(2200)/양성식(3000)/초저치킨볶음밥(2200)/떡볶이불고기(3000)
화(6/1)	후르츠랑수육(2200)/돈가스(2500)/쇠고기카레라이스(2000)/감자탕(2500)
수(6/2)	선거일 휴무
목(6/3)	비엔나계첩볶음(2200)/치킨가스(2500)/돈삼겹두루치기(2200)/만두전골(2500)
금(6/4)	순대떡볶음(2200)/저조돈가스(3000)/베이컨볶음밥(2200)/쇠고기국밥(2500)
월(5/31)	탕수육(2200)/돈가스(2500)/참치김치볶음밥(2200)/쇠고기국밥(2500)
화(6/1)	삼선적구이(2200)/치킨가스(2500)/제육비빔밥(2200)/손만두국(2500)
수(6/2)	짜장불고기덮밥(2200)/닭곰탕(2200)
목(6/3)	비빔만두(2000)/피자돈가스(3000)/산나물볶음밥(2000)/닭개장(2500)
금(6/4)	오징어콩나물볶음(2200)/정식(3000)/치킨마요덮밥(2200)/떡볶이불고기(3000)
월(5/31)	달걀비김치덮밥(2200)/돈가스(2500)/산채비빔밥(2200)
화(6/1)	제육떡볶음(2200)/고구마돈가스(3000)/쇠고기볶음밥(2200)
수(6/2)	선거일 휴무
목(6/3)	고추잡채덮밥(2200)/저조돈가스(3000)/불고기얼무비빔밥(2200)
금(6/4)	치킨골소스덮밥(2200)/곰바스(3000)/저조카레볶음밥(2200)
월(5/31)	데리야끼치킨덮밥(2200)/날치알술밥(2500)/계란햄볶음밥(2000)
화(6/1)	오삼불고기덮밥(2200)/치킨가스(2500)/불고기얼무비빔밥(2200)
수(6/2)	선거일 휴무
목(6/3)	달걀비빔밥(2200)/고구마돈가스(3000)/고추잡채덮밥(2200)
금(6/4)	새싹참치비빔밥(2200)/돈가스(2500)/오징어덮밥(2200)

동악을 가득 메운 뜨거운 대동제의 열기



① '동국에 취함' 행사. ② 돌+1 콘테스트 김의림(식품산업공학4)양의 이효리 퍼포먼스. ③ 댄스동아리 ODC의 연습현장. ④ 108리더스가 운영한 '나눔의 부스'. ⑤ 백상응원대제전. ⑥ 무료음료수 시음행사
사진 =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축제(祝祭)의 계절이 돌아왔다. '동국의 취향(趣向)을 즐겨라'라는 주제로 이뤄진 2010 민족동국 봄 대동한마당이 지난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팔정도, 만해광장, 대운동장 등에서 열렸다. 봄 향기를 머금은 동악의 곳곳은 축제를 준비하고 즐기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4일 동안 화려하게 펼쳐진 축제 속 동국의 취향을 찾기 위해 2010 대동제 현장과 그 뒷 모습을 취재했다.

특별한 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

동악에 봄의 향기가 도래할 때 즈이면 동국인들에게 특별한 공연(公演)을 선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동악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5일 학생회관 축제 공연을 하루 앞둔 동아리들로 학생회관은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좀 더 역동적으로!" 최신 가요와 지시 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연습에 여념이 없는 우리대학 중앙 댄스 동아리인 'O.D.C'의 일원들은 거친

숨을 내쉬 정도로 힘든 춤 연습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들은 이튿날 열리는 '동국에 취함' 행사에 유일하게 무대에 서는 댄스 동아리였다. O.D.C회장 김성태(경영2)군은 "축제 한 달 전부터 하루에 4시간 이상 매일 연습했다"며 "학생들에게 강렬한 브레이크 댄스부터 부드러운 매력의 웨이브까지 댄스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락 페스티벌 리허설 현장.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만해광장에서는 밴드 동아리 피어리스 댄이 무대에 오를 준비에 한창이었다. 악기를 배운지 채 1년이 안 된 인원으로 채워진 피어리스 댄은 무대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준비 연습과 더불어 악기 조율에 몰두하고 있었다. 피어리스 댄 14기 회장인 임정택(정보통신공학2)군은 "작년 7월 처음 결성된 후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다"며 "멋진 사우팅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싶다"며 머쓱하게 웃었다.

대동제에 분 나눔과 봉사의 바람

"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 아

이들에게 우물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모금입니다 참여해 주세요!" 축제가 진행된 5일 간 팔정도에서 운영된 다양한 부스 중 108 리더스가 운영한 나눔의 부스는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 초 방문한 캄보디아 우물 만들어주기 봉사활동에 관한 전시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알렸기 때문이다. 뜨거운 햇살로 인해 지칠만한 그들의 얼굴에는 나눔의 행복(幸福)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밖에도 윤리문화학과는 주점(酒店)이 용권을 이용하여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헌혈증을 기증 받았다. 임진화(회계2) 양은 "먹고 마시기에만 급급했던 기존 주점과 달리 좋은 취지로 진행된 것 같다"며 "다음 축제에도 나눔을 베푸는 주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제의 밤 열기와 아쉬움 동시에

나뎠는 일반 동아리에서 진행한 이색 행사들이 동악 곳곳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축구게임, 물 풍선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등

학생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행사로, 익살맞은 게임들로 축제의 여흥(餘興)은 어느새 게임의 참가자에서 구경꾼으로도 전해졌다. 낮의 열기를 이어가듯 25일부터 3일 간 해가 진 만해광장에서는 락 페스티벌, 돌+1 콘테스트, 백상응원대제전이 열렸다. 축제의 첫 날을 장식한 락페스티벌은 학내 뮤지션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시원한 사우팅과 실력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해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올해 이어진 돌+1 콘테스트는 만담, 댄스, 노래까지 학우들의 다채로운 끼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 참가 지원자가 적어 예선도 이뤄지지 못했다. 돌+1 콘테스트를 보기위해 만해광장을 찾았던 강새은(신문방송3)양은 "작년에 비해 끼 있는 학생들의 참여(參與)가 적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매년 학생들의 합성이 하나가 되는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 줬던 백상 응원(應援)대제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백상응원단은 화려한 응원복을 입은 채 구호와 함께 군무를 선보이며 무대를 누볐다. 하지만 유명연예인이 초청된 전년에 비해 공연을 즐

거려 온 학생수가 적어 응원제의 열기를 반감시켰다는 평이다. 백상응원대제전을 축제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백상응원단장 권재연(기계공학2)군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공연을 즐기러 온 학생수가 적어 호응을 유도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동제는 끝이 났지만 주점, 공연 뒤 남겨진 쓰레기는 축제를 즐길 줄 아는 동국인에게 흠집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26일 공연이 끝난 후 만해광장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이를 치우는 것은 총학생회의 몫이었다. 오혜진(윤리문화4) 축제기획단장은 "공연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동국인인 만큼 뒷정리에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2010 봄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 봉사와 나눔이라는 대학생다운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나친 주점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란, 고성방가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
KOSAC

정상으로!

우리의 광고 축제가 있는 그곳으로!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
2010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
경쟁PT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관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대학 광고홍보학과
추치 **KFAA** **KAS** 한국지역광고협의회 후원 Global Regist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NAVER**

2010
대한민국
대광고경진대회
서울지역예선